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Angel Club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2017
축구는
대구다



Angel Club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Angel Club>

계간 / 2017년 8월 9일 등록 / 등록번호_수성, 바00009

2017년 8월 28일 발행 / 인쇄 : ㈜케이프린텍(한금재)

발행기관 : 대구FC 엔젤클럽(회장 이호경)

발행 · 편집 · 디자인 : ㈜솔트커뮤니케이션즈(최중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안로 163(중동) (우. 42151)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우. 42064)

전화 : 053, 256, 2003 팩스 : 053, 746, 9199

메일 : daegufc2002@naver.com

Angel-with-us

1호 엔젤들을 소개합니다

나의 엔젤클럽 적응기

History of Angel

Daegu FC Report

대구 FC 전용구장 어떻게 되고 있나?

대구 FC 후반기 대반격!

대구 입단한 '사커루' 프라니치

Half Time Talk

축구가 있어 즐거운 나라를 가다

현대사진예술의 거장을 만나다

대구국제공항에서 떠나자

SUMMER, 2017, Vol.1

2017, DGB대구은행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달립니다

DGB대구은행은 언제나 고객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대구 FC 엔젤클럽 매거진 「엔젤클럽」 창간을 축하합니다



이름다운 대구·경북을 위해
금복재단이
함께 달립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50억 후원

무료급식, 사랑의 쌀 지원 등 복지시설 후원

대구·경북 체육 성금 및 독도 후원금 지원

청소년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금복문화상 시상 및 예술인 후원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후원



금복문화재단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SUMMER, 2017, Vol.1

CONTENTS

06 인사말

대구FC 엔젤클럽 회장 이호경

08 축사

대구FC 구단주 권영진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류규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진영환 / 대구FC 대표이사 조광래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한웅수

Angel-with-us

16 엔젤들을 소개합니다

1호 다이아몬드 엔젤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
1호 부부 엔젤 호텔 인터볼고 서기수 회장 내외
1호엔젤 진명전력 배장수 대표
여성 1호 엔젤 정모경 대표 / 유스 1호엔젤 신영재
엔젤클럽 대영채비 정민교 대표

24 릴레이는 계속된다

26 나의 엔젤클럽 적응기

28 원정응원단, 광주 전을 보고

30 대구FC 엔젤클럽은...

32 HISTORY OF ANGEL

대구FC 엔젤클럽 연혁
대구FC 엔젤클럽 창립 결의문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안내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Daegu FC Report

48 대구 FC 전용구장 어떻게 되고 있나?

50 대구 FC 후반기 대반격!

52 대구 입단한 '사커루' 프라니치
프라니치 일문일답

54 김선민 K리그 100경기 출전

55 대구FC '원클럽맨' 조현우

58 대구FC 태양의 전사들

Half Time Talk

70 축구가 있어 즐거운 나라를 가다.
1. 아르헨티나

74 현대사건예술의 거장을 만나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78 호텔에서 놀자
호텔인터볼고 대구

80 대구국제공항에서 떠나자

84 집은 무엇이 될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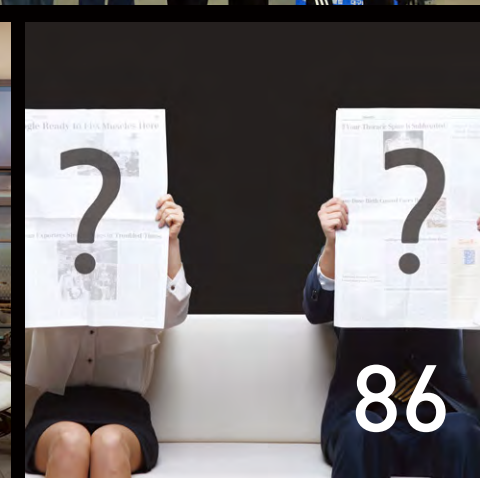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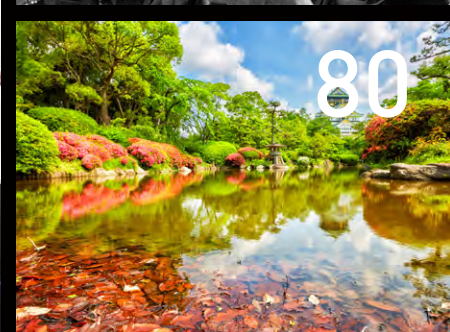
86 커져가는 PR의 중요성, 효과적인 PR방법

88 이미지 메이킹

90 보험상식
보험에 대한 접근 / 보험분류 /
보험 약관의 이해

92 DAEGU FC MATCH &
CULTURE PREVIEW

97 독자게시판
우편엽서 / 엔젤클럽 가입신청서 / 후원금 안내





대구FC 엔젤클럽 회장

이호경

반갑습니다. 대구FC 엔젤클럽 회장 이호경입니다.

대구FC는 문자 그대로 대구시민이 주인인 축구단입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주인의 무관심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오면서 날개 없이 추락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민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서 지켜보기가 편치 않았습니다. 웅크리고 있을 게 아니라 작은 힘이지만 기가 죽은 대구 축구의 자존심을 살리는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체의 정치색을 배제하고 시민구단의 무너진 자존심 즉 대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나서야하는 건 결국 주인인 시민들밖에 없다는 데 초기 멤버들의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두 흔쾌히 동의하면서 엔젤클럽이란 이름의 자발적인 대구FC후원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한 '다단계' 릴레이는 이렇게 시작 됐습니다.

처음엔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합쳐지면서 엔젤의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엔젤 숫자가 85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반 엔젤부터 다이아몬드회원, 엔시오 등등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하나둘씩 축구장을 채워 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경기장 일부를 차지한 채 목이 터져라 응원만 하고 있지만 언젠가 대구시민 모두가 엔젤이 돼 시민이 주인인 구단의 참모습을 보여주리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전용구장이 엔젤들의 열기로 가득 차는 신화로 널리 퍼져나갈 것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 전용구장 뿐 아니라 출범 초기 앞이 안보일 때부터 함께 해 온 엔젤들의 열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이야기 창고인 엔젤클럽매거진 곳곳에도 스며들 것 역시 굳게 믿습니다.

창간에 도움을 주신 엔젤들에게도 지면을 통해 감사를 전하면서 동시에 비록 이제 첫 발자국을 떼는 이 매거진이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대구FC처럼 엔젤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엔젤 여러분의 무한 애정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 매거진이 엔젤의 또다른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 대구 축구에 대한 사랑이자 대구에 대한 사랑의 열기를 전파함으로써 엔젤 릴레이가 끝없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축구는 대구다!





대구광역시장
대구시민프로축구단구단주

권영진

반갑습니다! 대구FC 구단주 권영진입니다.

이호경회장님과 800여 엔젤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만들어진 엔젤클럽 창간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엔젤클럽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민들의 축구단인 대구FC를 대구의 자긍심, 명문구단으로 만들기 위해 소중하고 결연한 의지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이름처럼 천사의 메시지를 보내준 엔젤클럽이 있었기에 대구FC는 4년 만에 클래식으로 승격하였고 더 밝은 미래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의 소중한 정신인 국채보상운동의 맥을 이어받아 시티즌 오블리주(Citizen Oblige) 정신을 실천하는 엔젤클럽은 스포츠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시민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대구공동체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대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준 여러분이 있어 참으로 자랑스롭습니다.

엔젤클럽의 발전과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류규하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류규하입니다.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창간호 준비로 애쓰신 대구FC 엔젤클럽 이호경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 창립한 대구FC 엔젤클럽은 그동안 2부 리그에 머물던 대구 FC 프로 축구단이 2017년에 1부 리그인 클래식 리그로 승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축구계에서 주목받으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간하는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이 시민 구단인 대구FC 프로 축구단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과 응원을 통해 후원 문화와 축구 관람문화를 확대하여 온 엔젤클럽 활동을 널리 알리고, 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대구FC 프로 축구단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건전한 도시공동체를 위한 시민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오신 대구FC 엔젤클럽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대구FC 프로 축구단이 시민 자립 명문 구단으로 성장하여 시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자존심을 살려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창간을 거듭 축하드리며, 함께하여 주시는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진영환

반갑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진영환입니다.

엔젤(angel)은 그리스어 안젤로스(angelos)에서 온 말로 신과 인간의 중개자라는 뜻입니다.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인간의 소망을 신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엔젤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존재가 우리 대구에도 있습니다. 대구시민과 시민구단 대구FC를 연결해 주는 전령이자 대구FC가 진정한 명문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서 후원하는 ‘대구FC 엔젤클럽’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년전 순수한 뜻을 모아 출범한 엔젤클럽이 벌써 3년차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만으로도 엔젤클럽에 대한 관심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많은 시민들의 가슴속에 엔젤클럽의 존재가 각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엔젤의 열정적인 성원에 힘입어 2부리그에서 4년간 머물렀던 우리 대구FC가 올 해 드디어 1부리그 클래식으로 승격하는 소중한 결실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구FC 엔젤클럽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새롭게 매거진을 창간합니다. 대구FC의 다양한 소식에 목말랐던 팬들과 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대구의 자긍심을 높이는 또 하나의 소중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롭게 출간되는 매거진을 통해 알차고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매거진의 역사가 쌓이는 만큼 대구FC와 엔젤클럽도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해 주신 이호경 회장님과 엔젤클럽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구FC 엔젤클럽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사장
조광래

반갑습니다. 대구FC 대표이사 조광래입니다.

대구FC를 후원하고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뜻 있는 시민 스스로가 결성한 대구FC 엔젤클럽이 클럽 소식을 전할 첫 매거진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매거진을 발간하기까지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직 지역사랑 운동 차원에서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그동안 많은 애를 써 오신 이호경 회장님·운영이사님·회원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축구천사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단은 그동안 시민구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오랫동안 2부리그에 머무는 등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왔습니다만 엔젤클럽 결성과 왕성한 활동 덕분에 1부리그로 승격하여 이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팀들과堂堂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젤클럽은 시민구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으며 다른 시민구단들로부터 많은 부러움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단은 이러한 여러분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전 선수단이 혼연일체가 되어 명문구단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는 그 도시의 대표 브랜드이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미래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첫 발행되는 매거진이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성장케하는 주춧돌이 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밝고 활기찬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엔젤클럽 또한 대구의 과거민족정신을 잘 이어가는 새로운 지역사회 사랑운동의 모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한웅수

안녕하십니까?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한웅수입니다.

대구FC를 좀 더 발전시킬 든든한 버팀목인 '엔젤클럽'의 매거진이 발간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사에 한 획을 그었던 2002 월드컵의 영광과 함께 창단한 대구 FC를 시작으로 K리그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 수 있었습니다. 그런 대구FC가 벌써 15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중견 구단이 되었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구단의 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1983년에 출범한 K리그 역시 제2의 발전을 위해 유소년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밀착'입니다.

지역 연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프로축구단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탄생한 '엔젤클럽'이 대구FC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구단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로축구연맹에서도 대구FC의 '엔젤클럽'이 구단의 재정기여와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낸 좋은 사례로 각 구단들도 적극 시행할 것을 권유할 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티즌 오블리제(citizen oblige)의 실천인 '엔젤클럽'이야 말로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의 바람직한 구단 사랑의 방법이며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어 진행중인 전용경기장 건설 등 대구FC 제2의 도약의 밑거름이 되어 명문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구FC와 '엔젤클럽'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RO BONO (For the Public Good)
PRO BONO는 "공익추구가 바로 최상의 수익모델"이라는 대성그룹의 100년 비전입니다.

대성그룹 대성에너지(주)

매월 4일은 가스안전 총점검의 날



SolaWin Q

새로운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변화 대성그룹이 이끌어 갑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땅속과 하늘에서 물을 만드는 기술
대성그룹이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 식량 문제 해결을 통해
대성그룹이 새로운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대구 FC 엔젤클럽 매거진 「엔젤클럽」 창간을 축하합니다



Angel-with-us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같이 머무는 것은 진전이고,
같이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 헨리 포드(Henry Ford)

2017
축구
대구





1호 다이아몬드 엔젤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습니니다”

평소 축구경기를 즐겨보느냐는 질문에 다이아몬드 엔젤 1호 회원인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의 답변은 다소 의외였다.

“하지만 엔젤 클럽의 활동을 보고 이런 서포터즈라면 ‘동참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웃으며 말을 이었다.

관심이 없었다는 이 회장의 말과 달리 중간 중간 대구FC 선수들이 경기에서 한 활약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땐 경기장에 자주 못 나가는 미안한 마음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회장은 10월 4일날 1004명의 엔젤이 모여서 문자 그대로 대구FC의 천사(엔젤)가 됐으면 좋겠다며 엔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팬들의 사랑 즉 관심을 먹고 산다며 그런 점에서 엔젤들이 대구FC의 1승, 1승을 견인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마라톤을 예로 들었다.

데드 포인트(사점死點) 즉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시점에서 선수들의 귀에 들리는 건 단 하나 관객들의 박수소리 뿐이라며 엔젤의 박수는 대구FC의 기적을 낳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엔젤의 박수는 사점을 지나 세컨드 윈드(second wind) 즉 신체가 힘든 운동에 적응하게 돼 경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상태로 가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체력이나 기술 같은 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황소가 호랑이보다 힘이 훨씬 좋지만 초식동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며 황소 주인의 응원소리만 있으면 초식동물인 황소가 육식동물인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 있다는 예도 들었다.

그만큼 관객이 중요하고 관객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로 해석됐다.

이 회장은 언론에서도 패배를 부각시키기 보다 ‘비록 졌지만 이런 이런 점들은 돋보였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게 중요하며 1승을 거뒀을 땐 아낌없이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엔젤의 ‘박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 ‘박수’가 모이고 엔젤의 활동이 대구 FC에 힘이 되는 게 널리 알려지면 언론의 기사체도 바뀔 뿐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대구 축구 사랑을 위해 축구장으로 모일 것이라고 했다.

그런 맥락에서 선수들과의 스킨십 즉 커피 한잔, 콜라 한잔을 놓고 엔젤클럽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선수들의 이름을 알고 약수라도 서로 나눠야 경기장에서 더욱 더 목이 터져라 그 이름을 부르며 응원도 하게 된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실천되다 보면 릴레이 엔젤가입과 더불어 자발적인 의사로 가입하는 회원들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6월 17일날 대구-광주전에서 직원 자녀들이 선수들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을 봤다고 하자 삼보모터스 직원들의 응원 참여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FC가 광주에서 경기를 하면 삼보모터스 광주 공장 임직원 300여명이 구장에 나가 대구를 응원하고 반대로 대구에서 광주전이 열리면 대구공장 임직원들이 나가 광주를 응원한다는 것이다.

대구와 광주 협약인 달빛동맹이 달빛응원으로 진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축구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축구사랑이었다.

인터뷰 말미에 유행가와 클래식의 차이가 무언지 이 회장이 되레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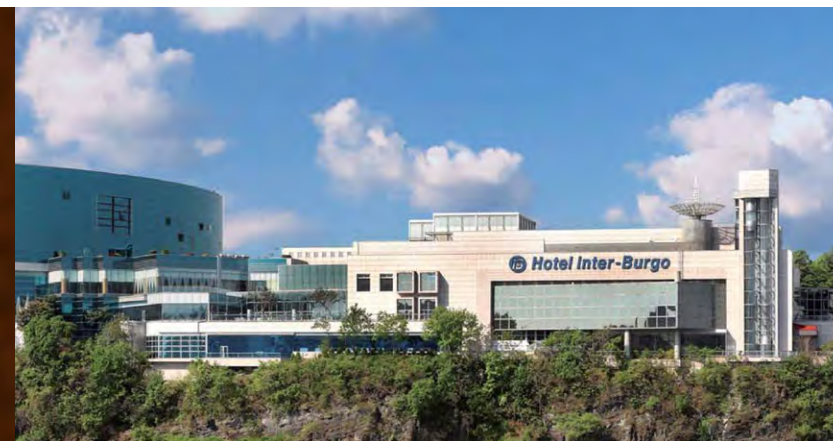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자 이 회장은 “유행가는 노래 가사를 외우고 여러 번 따라하다 보면 쉬이 질릴 수 있지만 클래식은 150년을 들어야 질린다고 한다”며 “비록 대구FC 선수들이 반짝이는 유행가처럼 스타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엔젤의 박수를 받아 자신들이 가진 기량의 200%를 발휘하면 클래식처럼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질리지 않는 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클래식 협연을 만들어내는 큰 축이 바로 엔젤회원이란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1호 부부 엔젤 호텔 인터불고 서기수 회장 내외



엄히고설킨다는 게 대개는 빠져나가기에 불편함이 따른다는 걸 의미하지만 엔젤클럽에서만은 그 의미가 살짝 달라진다.

기분 좋은 역임. 그런 점에서 1호 부부엔젤인 호텔 인터불고 서기수 회장 내외의 엄히고설킴은 더 큰 엄히고설킴을 예고하고 있다.

엔젤클럽 이호경 회장과의 인연에다 죽마고우인 강병규 엔젤운영 본부장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1호 부부엔젤이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부부는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다. 비록 구장에 나가 응원하는 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쉽지 않지만 나가기만 하면 의자에 앉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광팬'이 된다고 한다. 서 회장은 아내의 열정이 더 대단하다고 했다. 둘 다 운동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해서 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를 했을 때 하루가 멀다하고 스타디움을 찾았다고 한다.

1호 부부 엔젤로서 축구장도 그렇게 찾고 싶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할 형편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한다.

7월 1일 열린 대구FC와 강원과의 경기에 응원을 나간 부부는 골대 뒤 열렬 팬들의 자리인 익사이팅존에서 경기를 봤는데 박진감이 이만 저만이 아니더라고 했다.

스타디움에서도 그 정도인데 전용구장이 생기면 선수들의 숨소리와 땀까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 날은 박진감 뿐 아니라 대구FC 선수들이 강원 선수에 비해 왜소한 것까지 한눈에 들어와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그래서 회장님과 함께 선수들 키는 갑자기 키우진 못하더라도 몸보신이라도 시켜주자며 조만간 날을 잡자고 했다는 것.

회원가입 릴레이에 대해 물었다.

“참으로 다양한 직종, 다양한 그룹들이 엔젤을 구성하고 있는데

회원가가 빠져 있더라고요. 조만간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회원가 회원들 가입에 적극 나서보려고 합니다” 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서 회장은 호텔업 경력이 일천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다 돌아볼 여유는 없지만 엔젤회원을 늘리는데 한번은 앞장서야겠다고 항상 생각했다고 한다. 거기엔 아내의 기본 좋은 '채근'도 한 몫 했다고.

고2 막내 아들이 시험을 앞두고 축구를 하면 꾸지람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는 서 회장 내외. 매거진에 실릴 사진을 위해 둘이 마주보고 좀 웃으라고 하니 계면쩍다며 얼굴부터 붉어지는 내외.

이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부부를 넘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 좋은 것을 더불어 하자고 주위에 '조용하게' 말을 걸 것 같은 내외란 걸 길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1호엔젤 진명전력 배장수 대표



처음으로 '엔젤'칭호를 받은 진명전력 배장수 대표.

배 엔젤은 대구에서 태어나 59년을 한 집에서 주소 이전 한 번 못(?)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대구 토박입니다.

이호경 회장과 강병규 본부장(당시 추진위원장)의 대구FC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게 1호 엔젤이 된 배경이라고 합니다.

배 엔젤은 원래 축구를 좋아하고 조기축구회도 오랫동안 한 축구마니아여서 그의 축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엔젤 1호가 된

배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엔젤클럽에 가입하고 나서 대구FC를 제대로 들여다보니 큰 스폰서가 운영하는 팀보다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자금이 열악하다보니 우수선수 영입이 힘들고 그러다보니 성적을 못 내고 관중도 떨어지는 소위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걸 느꼈다는군요. 이제 1004명의 엔젤 탄생을 목전에 둔 지금은 이런 빈곤의 악순환 역시 옛날 이야기로 남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합니다.

1호 엔젤의 자금심으로 대구FC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성 1호 엔젤 정모경 대표

여성1호엔젤 정모경 대표는 왜관공단에서 자동차시트 등에 들어가는 섬유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병규 본부장이 '좋은 모임'이 있으니 함께 해 보자고 해서 가입하게 됐다는 정 엔젤.

엔젤에 가입하기 전부터 축구를 한 번씩 가봤지만 매번 관중이 너무 적어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엔젤 가입 후 회원들의 열기만으로 관중석이 꽉 차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 2부 리그에 머물렀던 대구FC가 1부 리그로 올라가게 된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이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응원석에 앉으면 예전과는 너무 다른 열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열성적인 엔젤 이사님들은 각자 자기분야에서 최고여서 최고로 바쁠텐데도 대구FC를 시민의 힘으로 우뚝 서는 구단을 만들어 보자며 앞장서서 응원하고 후원하는 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온답니다. 정 엔젤은 다른 말보다 첫 번째도 참여, 두 번째도 참여를 언급했습니다.

대구FC가 명문시민구단으로 우뚝 설 때까지 말입니다. 아니 그 후까지 라도요. 



Angel 유스 1호엔젤 신영재

엔젤클럽이라고 젊은 피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엔젤클럽의 젊은 피 1호가 바로 신영재 계명대 총학생회장입니다.

대구FC 엔젤클럽과 계명대 협약식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다 지역스포츠 산업과

대학생 문화생활 교류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바로 회원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평소엔 학교 선배들과 친목도모를 위해 축구 경기를 진행해 관객으로 즐기지만 엔젤 회원으로 소속감을 갖고 대구FC경기를 직접 관람해 보니 새삼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느끼게 됐다고 하네요.

특히 관람한 날 엔젤회원들과 참여 학생들의 응원과 기도가 전해졌는지 경기에 승리를 해 기쁨은 배가 됐습니다.

TV나 인터넷이 아닌 직접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며 함께 마음으로 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구의 묘미가 아닌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아직도 벅차합니다.

대구FC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열정이 부족한 점이 아직은 아쉽지만 신 엔젤부터 열정을 갖고 더욱 멋지게 비상하는 대구FC를 만드는 젊은 엔젤이 될 수 있도록 앞과 뒤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엔젤클럽 대영채비 (정민교 대표)



대구지역구가 아니라 전국구로 명성을 더 날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가 바로 대영채비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차산업. 그 중에서도 기술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기회사인 대영채비.

대영채비는 전기자동차의 발전과 보급만큼이나 빨리 성장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발주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을 단독 수주했을 정도다. 단독 수주도 물론 의미가 크지만 무엇보다 출범 1년(2016년 5월 26일 설립)만에 선발업체들을 제치고 이런 수주를 했다는 건 업계에서도 놀랄 정도다.

이 수주를 통해 대영채비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마트 및 상업시설에 총 260기(60억 원 규모)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게 된다.



출범 1년만에 이런 성과를 낸 건 모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모기업은 바로 달성군에 위치한 대영코어텍. 이 회사는 지난 38년간 각종 공작기기를 제작해 온 기계제조전문기업이다. 지금은 두산공작기계의 머시닝센터를 주문자생산 방식으로 한달에 180대씩 납품하고 있다.

대영코어텍이 대영채비를 설립한 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과거 대구의 대표산업인 섬유가 몰락의 길을 걸으며 오랫동안 지역 경제는 암흑기를 보냈다. 다시 대안업종으로 떠오른 게 자동차부품과 기계공작분야였다. 열심히 해서 경쟁력을 회복해 가던 중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 대구의 주요 공단에 비상이 걸렸고 미리 준비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대영채비의 주력 제품은 완속 벽걸이형과 고효율급속 전기차충전기다. 작지만 강력한 게 특징이다. 이 제품은 충전용량 50kw급을 지원한다.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30분 이내에, 쉐보레 볼트 EV는 1시간 이면 각각 충전을 끝낸다. 충전기가 전기차를 찾아 이동하는 '스마트 무빙충전시스템'도 개발해 놓은 상태다. 한번에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1대 N충전시스템 역시 준비했다. 대영채비의 빠른 준비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기차는 1만3천여대다. 국내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는 그 10분의 1인 1천 300대. 2020년 국내 전기차는 20만대로 예상된다. 급속 충전기도 2만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완속충전기 규모는 더 크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완속 충전기 9천 515대에 대한 설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자가 나올 때마다 완속 충전기 한 대가 설치 된다고 보면 된다.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대영채비의 준비 역시 그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배경엔 대영채비만의 기술력이 자리잡고 있다.

40년에 가까운 기계제조전문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이 고스란히 전기차 충전기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설계와 금형, 제품 제조, 설치, AS, 충전인프라까지 모두 지원하는 폭넓은 기술력을 갖췄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에 지사를 두고 충전시설 관제 시스템과 R&D 연구실을 구축하며 연구개발 및 관리

능력 향상에 투자를 확대했다.

기술력만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다. 대영채비는 경쟁사 제품에 비해 외관 디자인과 사용자 편의성 역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기와 연결된 충전 케이블은 '릴 케이블'방식을 적용해 평소 충전 케이블을 기기에 보관하도록 했다. 케이블이 땅에 끌려 손상되지 않고 15kg짜리 무거운 충전 케이블도 여성이나 노약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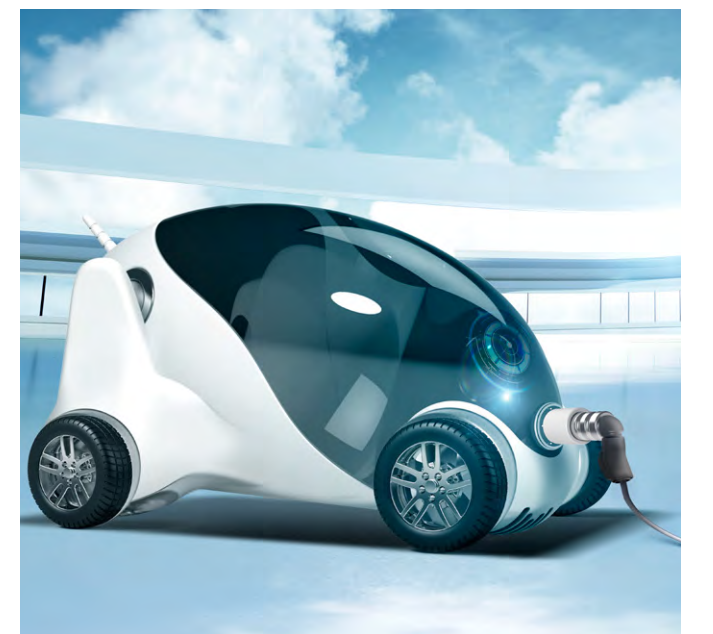
충전분야 관련 특허 기술만 30여개로 타사와 차별화된 제품 생산에 바탕이 되고 있다.

대영채비는 환경부의 충전기 보급사업이 연말에 마무리되면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머지 않아 회사 직원의 절반이 전기차를 타고 출퇴근할 것이라는 정민교 대표는 "임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며 무엇이 더 편한지 고민하면서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에서 앞으로는 사이버-물리융합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며 "충전기 등 전력전자분야가 그 임계선에 있다고 보기에 전기자동차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유럽 몇몇 국가가 2020년 혹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며 한국도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고 있다"며 "지역 기업으로서 대구를 넘어 한국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한 단계 더 진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젤클럽의 최장 릴레이 7대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정영준 / 권일경 / 안상영 / 김국경 / 이호경 / 김규정 / 조정옥 / 김호준 여자친구 / 김호준

릴레이는 계속된다

엔젤클럽회원 정영준

지금까지 엔젤클럽에서 최장 릴레이를 이어간다고 그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해서 약간은 당황스러웠지만 엔젤은 릴레이가 활동의 생명이라는 생각에서 엔젤매거진 창간호에 얼굴을 내게 됐다. 사실 릴레이 모범사례 대구FC프로축구단 후원을 위한 회원모집 방법을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릴레이 방식으로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이호경 회장이 제안하면서 추진되기 시작 했다. 제일 먼저 참여하는 사람이 시조가 되어 주변에 축구를 좋아하고 대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엔젤회원으로 추천하여 릴레이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활동을 떠나가자고 뜻이 모아진 것이다.

처음에는 '잘 될까?'라는 의문도 있었고 엔젤의 가치와 목표를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호응을 할까하는 의문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의외로 엔젤클럽이 타 모임과는 달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침체된 대구의 축구를 한번 일으켜보자는 순수하고 맑은 행보여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며 좋은 마음으로 선뜻 동참해주는 데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처음에는 친한 지인으로 시작한 우리 릴레이 조는 어느새 7대까지 탄생 하게 되어 가장 많은 계보의 식구를 보유하게 되었다.

식사자리에서 강병규 운영본부장의 권유로 시작한 1대 시조인 정영준 엔젤은 가입과 동시에 릴레이에 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어 권일경, 안상영, 김국경, 김규정, 조정옥, 김호준으로 릴레이가 이어졌다. 특히 두손건축의 조정옥 대표는 엔젤의 목적과 앞으로의 비전을 듣는 순간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엔젤클럽을 너무 늦게 알았다"라며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입을 했다. 나아가 장남인 김호준 '준애니팜'대표를 추천, 첫 번째 모자가 함께하는 엔젤로 탄생하기도 하였다. 7대까지 릴레이가 이어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엔젤의 열정과 더불어 별도의 모임없이 편하게 만나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공간은 바로 경기장에 마련된 엔젤룸. 대구FC엔젤클럽은 타 모임처럼 월례회 등 별도의 모임이 없으며

경기일에 마련된 엔젤룸에서 회원 상호간에 만나 상견례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점이 회원 외연 확장에 부담이 크게 없기 때문이다. 같은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사람들의 열정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터놓고 나눌 수 있다는 공간도 경기 때마다 만들어진다는 점이 엔젤클럽회원 릴레이를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릴레이 7대 역시 8월 20일 열린 상주전 경기 때 엔젤룸에서 만나 단체 기념사진을 찍으며 화합을 다졌다. 특히 이날 막내 격인 김호준 엔젤은 여자 친구도 데려와 새로운 릴레이 동참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릴레이가 7대에서 멈추지 않듯이 앞으로도 대구를 위한, 대구FC 프로축구단을 위한 우리 엔젤클럽의 릴레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원정응원단, 광주 전을 보고

시작의 발단은 순전히 안상영 엔젤님이 8월10일 올린 13일 일요일 광주전 원정응원단 모집을 독려하는 단독방의 이 글 때문이었다.

"바둑 용어 중에 '미생마는 동행하라'는 귀절이 생각납니다. 우리 대구가 아직은 완생이 아니기에 몇 점 더 가일수 하는 심정으로 응원이 필요합니다."

보탬사고, 보탬역할에 열광하는 나로서는 덤석 물 수밖에 없는 밑밥이었다. 지금이 가장 어둡고 지금이 가장 힘들 때, 내가 엔젤이라면 지금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엔젤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의 저 수고로움에 이미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호경 회장님의 설명을 듣고 엔젤클럽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하여 엔젤로 작년 11월에 가입을 했으나 경기장 응원까지 가기엔 아직 목적의식이나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더구나 아무리 지역팀 이라지만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팀의 경기를 경기장까지 가서 관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이 움직여지지않았다.

거기다가 골포도 아니고 야구도 아닌 축구라니, 단독방에서 경기알림과 관전독려의 메세지가 수없이 뿜었지만 그래도 축구라니...

한번은 가줘야지 않겠냐는 엔젤인으로서의 의무감(?)때문에 기회만



엔젤클럽회원
박 우 연

보고 있던 중 안상영 엔젤님의 저 "미생마는 동행하라" 는 글귀가 달빛더비로 기꺼이 동참 하게끔 만들었다

가기로 결정된 일에 반복이란 있을 수 없으니 광주에 비가 온다한들 무슨 문제가 있으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그냥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남의 장소 월드컵 스타디움 2주차장에서 버스를 탔다.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가만히 자리를 찾아 앉았다. 김밥과 과일 등을 나눠받고 김종두 총장님의 사회로 안상영 엔젤님의 오늘 달빛더비의 중요성과 첫 원정응원단이 생성된 이야기가 나왔다.



자연스럽게 엔젤님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지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 가게 되던 중 송원배 엔젤님의 시 낭송으로 즐거운 분위기가 한껏 달아 오르고 있었다. 경기 후 광주의 맛집에서 애호박 돼지찌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역시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사실 이렇게 원정응원단을 꾸려서 보내기까지는 요소요소에 찬조하시는 분들, 챙기시는 분들, 독려하시는 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건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어찌 보면 나 같은 경우 몸 부조일 뿐인데도 감사의 인사는 더 많이 듣게 되는 호사를 누린다. 이 날도 마찬가지였다.

비가 오고 그치기를 일만 반복했을까. 마침내 경기 시작을 코앞에 두고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도착하여 깔맞춤 티셔츠를 입고 난생처음으로 축구장에 입성하였다.

이 낯설음을 깨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나는 지금 드디어, 축구장에 있다.

축구, 축구라...

물론 게임의 룰도 알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열광도 하지만 그래도 여자에게 축구란 국가대항 빅 매치에서나 TV 앞에 앉아서 잠시 흥분하는 그런 종목일 뿐이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녀들의 세계가 아닌 축구 이야기나 군대 이야기를 싫어한다. 더구나 군대에서 축구를 이야기를 여자에게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살골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경기장에는 왔지만 상대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선수들의 이름도 포지션도 모르는 맹탕인 상태에서 여기에 응원하러 왔으니 오합지졸이 따로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그래도 부부젤라 몇 개와 서포터즈들의 북과 가공할 목소리가 있지 않은가?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며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중구난방이던 응원전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우리 문전이 불리할 땐 부부젤라의 소음으로 상대들을 제압하고 상대 문전을 억박지를 땀 부부젤라도 자연스럽게 조용해졌다.

우리 골문을 단단히 잠고 있는 골키퍼가 조현우이고, 우리의 에이스 세징이라는 용병선수가 있다라는 정보(?)도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지막엔 극장 골의 의미까지도 완벽하게 알게 됐다.

돌개바람에 실린 비가 사방으로 들어쳤지만 그 자리에 서서 비를 맞고 또 우산을 쓰면서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호흡을 같이



하였다. 이미 비와 바람은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광주에 온 이유를 충족하기 위해서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응원은 더욱 간절하게 되었고, 거기에 화답한 선수들도 마지막 혼신을 다해 그라운드를 총횡무진 누비고 있었다.

선수들의 노력에 대한 보답인 골이 점점 더 절실해졌지만 속절없이 시간은 후반전도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다.

그 때였다. 거짓말처럼 홍승현의 슛이 상대선수 손에 맞아 핸들링 반칙으로 천금같은 페널티킥을 얻었다. 승리가 눈앞에 보였다.

하지만 쉽진 않았다. 키퍼인 주니오가 실축을 해 버린 것. 물론 눈 깜짝할 새 다시 달려들어 골로 연결시키긴 했지만 가슴이 철렁했다.

후반 막판에 넣은 한 골로 1대0으로 리드하며 버틴 3분여의 시간이 30 분 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골이 선언되는 그 순간의 희열과 터져 나오는 함성은 아무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다.

어떠한 글이나 말로도 그때의 흥분을 표현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그 현장에 있었기에 가능한, 펄떡거리는 심장의 소리를...

"그래. 바로 이것이야.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의미이고 숨을 쉬는 그 무엇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 엔젤에서 추구하는 하나 된 대구인 것이야!"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원정응원단과 선수들 그리고 관계자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다.

나는 안다. 머지않아 내가 우리 선수들의 이름과 포지션 등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줄줄 꿰고 있게 되리란 걸.

엔젤과 함께라서 더욱 뜻깊었고 온몸을 젖게 한 빗소리마저 말할 수 없이 정겨운 너무나 아름다운 밤이었다.

뒀이 중헌디...

우리는 광주전에서 이겨야 했고, 광주에 이기려 왔고, 광주에서 우린 이겼다.

과히 미생마와 동행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1004 대구엔젤의 날개를 타고 대구FC는 완생으로 비상한다.

이번 주 일요일도 나는 대구 스타디움 경기장으로 간다.

9위를 사수하라!" 



광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안 상 명** 엔젤

나의 엔젤클럽 적응기

1. 엔젤 입성

택택이를 아시는지요. 온 동네 사람들 힘을 다 빼게 만드는 애물단지 였지만, 가뭄 때 물을 푸는 양수기 역할을 충실히 했으니 무시 하지도 못할 놀이였죠.

한 번씩 힘 빠진 어른들을 대신해 호기롭게 나섰지만 열에 아홉은 불발 이었고 운 좋게 시동으로 연결된 날은 아마 지금의 홀인원에 버금가는 기분이었죠. 해서 어린 저는 택택이 시동에 들어갈 강동 물을 떠다 나르며 맥가이버 같았던 어른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곤 했었지요. 이게 발전되어 경운기의 몸통이 되었을 때 우린 화물석에 앉아 어른들이 거는 택택이 시동을 기다리며 크루즈 여행 채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철이 들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저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택택이 코를 잡고 맘을 뽀뽀 흘리며 온 힘을 다해 핸들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온 몸엔 그리스가 잔뜩 튼 채로... 근데 지금의 엔젤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유능하신 회장님과 본부장님의 탁월하신 리더십과 술선수범으로 택택이가 한번에 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2. 엔젤 적응

60~70년대 5일장 날이 되면 되면 가족 모두가 기분이 고조되곤 했지요. 집안의 큰 목소리도 찾아들고 서로들 눈치 싸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장에 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죠.

과년한 고모나 이모들은 쉽게 못 갔습니다. 이웃 동네 한량이라도 만나 바람 들까봐서요.

돌이켜 보면 장에 가는 이유가 참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옆집 뽀뽀이 아재는 소장수 소 물고 새벽같이 출발했고요. 앞집 합천 할매는 들기름 바른 참빗으로 곱게 단장하고선 고추 말린 거 한 푸대 머리 이고 종종걸음으로 나서곤 했지요. 재실 옆 방우 아재는 어제 돌아가신 당숙부 부고 들고 고무신을 동여맸고요.

우리 할매는 할매 잔소리 무시하고 삼베 적삼 차려 입고 먼지 풀풀나는 신작로를 건너 가셨지요. 일 바쁜 우리 엄마는 이 눈치 저 눈치에 한숨만 쉬었고요. 온종일 장에서 소일한 무사태평한 우리 아버지 저녁 늦게 비린내 나는 칼치 한 마리에 모든 것 면책 되었구요.

엔젤에 입성하신 회원님들도 사연이 다양 하실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니겠지요.

3. 엔젤비전선포식을 앞두고

처음 엔젤을 권유받고 반신반의 한 때도 있었고 130명의 엔젤이 마지노선처럼 느껴지며 조바심을 내던 때도 었그제 같은데 집행부 엔젤님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250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불길처럼 번지는 대구 사랑과 봉사의 마음은 그동안 지적 정체를 겪고 계신 지역의 지식인들께 참봉사의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저 혼자 생각해봅니다.

이 열정과 순수한 맘으로 치루게 될 내일의 2016년 "엔젤비전선포식"은 내년 대구FC의 선전으로 연결될 것이며 축구팀의 선전은 지역사회의 정체된 분위기를 활기와 도전으로 바꿔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세라면 1004명의 엔젤도 과히 먼 숫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엔젤님들의 참여 인원을 보노라면 동절기를 앞두고 양식을 비축하던 할아버지 마음이 지금 이 마음 아닐런지요.

지금의 작은 물줄기가 머지 않는 훗날 장강의 위용을 자랑할 때 내일의 참석만으로 저도 물길을 조금 내었다고 생색을 내어도 욕하진 않으시겠지요.



4. 후원 첫 걸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느끼는 두려움과 긴장감 누구나 느껴봤을 테지요.

비포장 도로 도보통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선 반듯이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습니다. 짧은 다리로 폼 나지 않게 옆 타기로 입문한 자전거는 안장 위의 개선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 했습니다.

처음 뒤에서 잡아주던 삼촌이 손을 떼 후 혼자 앞으로 가는 쾌감의 짜릿함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결국엔 쌓아 놓은 집단에 비상 정지를 하며 고꾸라지는게 다반사였습디만, 그 아픔은 짜릿한 승차감으로 충분히 보상 받고도 남았습니다.

엔젤의 후원 행렬이 자전거 배우기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첫 발 떼기가 어린이 발걸음처럼 더디지만 한발만 떼면 금방 균형이 잡히고 근육이 붙겠지요. 후원을 늘리는 첫 걸음은 일부의 전력 질주보다 전부의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연말연시 모임 옆 자기에게 던지시 건네는 한마디로 자전거타기에 함께 도전 하는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5. 후원 릴레이

k형 보시게! 나는 35년 전 아버지 앞에서 해병대 자원입대 하겠다고 호기를 부린 적이 있었다네. 아버지의 만류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다행인지 아쉬움인지 아직 분간이 잘 안되네. 아무나 올수 있었다면 절대 해병이 되지 않았다고 절규하는 젊은 훈련병 병사들을 TV에서 가끔 보곤 하지.

엔젤 입성을 축하하네. 아무나 엔젤이 될 수 있었다면 난 자네를 초청하지 안했을 것인데. 커뮤니티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자네나 나나 여러 곳에서 가입 제의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나이의 현실 아니겠나. 자네도 알다시피 나도 여러 곳에서 활동 했고 또 어떤 곳은 거절도 했었지. 이번에 자네가 가입한 대구FC 엔젤클럽의 고유 가치와 추구하는 방향은 자네가 느끼는 그대로일세. 보탬 것도 뺄 것도 없이 대구FC시민 축구단을 후원하고 응원을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일세. 물론 많은 커뮤니티에서 더 큰 봉사와 후원으로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겠지만 그다지 큰 노력 없이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엔젤클럽이 우리에게 맞춤형 봉사인 것 같아 자네를 추천 한 것일세.

6. 축구장 상견례

어떤 만남이던 첫 만남은 설레게 합니다만, 오늘 축구장에 처음 오시는 엔젤님들의 어색함은 3년을 연습하고서야 첫발을 떼는 어린아이의 첫 걸음보다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단골의 편안함은 첫 대면의 쑥스러움을 극복한 분들의 몫일 것입니다. 내 후년 한국 축구의 메카가 될 고성동 전용구장의 주인공이 되려면 밑불의 수고는 의무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고 응원하는 팀이 있어야 진정한 중산층이라는데 급하게 잘 살게 된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력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영세한 시민구단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봉사를 실천하는 엔젤클럽은 선진국 기준 진정한 중산층의 필요조건입니다. 엔젤의 날.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어 시민구단 대구FC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7. 경기에 빠져들다

8전 9기를 이뤘던 7월 19일 포항전은 엔젤시대 이후 역대급 경기로 불려도 손색없는 경기였습니다. 결과도 좋았지만 내용은 훨씬 풍성하였습니다. 수비에서는 한희훈, 김진혁이 상대방 원톱 양동현의 발을 묶어 그 동안 고생한 수문장 조현우의 수고를 반감시켜 주었습니다.

공격에서는 본인의 개인기로 만든 세징야의 선제골은 메시 수준의 예술 골이었고 공격본능을 감추고 전담수비에 치중하던 김진혁이 넣은 버락같은 중거리 추가골은 지난 강원전 슈퍼 장거리 골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 하였습니다. 후반 에반드로의 빼기골은 '넣고잡이'의 욕식을 해소시켜준 자체 민원 골로 우리 대구가 상위권 팀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공격력을 보여준 마지막 퍼즐조각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김선민이 원어로 빠져 공격의 물꼬를 텃지만 중원을 책임진 우상호와 류재문의 경기조율 능력이 위협적이지 못한 점입니다. 이번 달 보강된 전현철과 프라니치가 합류하는 23라운드부터는 프라니치가 수비수 한자리를 맡고 전현철이 원어로 제 몫을 해주며 김선민이 중원의 제자리로 돌아와 전방으로 송곳 패스를 찔러준다면 보는 재미가 전과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집에서 TV로 보는 축구는 배달 음식을 먹는 기분이 더해 멋진 식당에서 주방장의 손 맛을 제대로 느낄수 있는 직접관람에 점점 중독이 되어갑니다. **Agony**



대구FC 엔젤클럽은...

필자에게 엔젤클럽은 큰 의미와 깊은 인연이 있다.

필자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과장 보직을 받은 때는 2013년 9월이다. 대구FC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던 중 많은 애로사항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시민구단으로서 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축구전용경기장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는 것 그리고 선수들의 사기마저 떨어져 2부 리그로 강등 되어 있는 등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면 구단의 존립 문제는 물론 더 안타까운 것은 250만 대구시민의 자존심까지 훼손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라 어떠한 방법이든 시민들이 대구FC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해법을 찾기 위해 며칠을 고민하다 문득 떠오른 분이 필자가 감사관실에 근무할 당시 감사관으로 모셨던 (당시 퇴직하시고 세영공인회계사 운영) 강병규 회계사님이었다. 강병규 회계사님을 찾아가 구단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말씀 드리고 시민구단으로서 시민의 역할이 절대 필요한데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다.

강병규 회계사님은 대구시 감사관으로 재직 당시 사회에서 얻은 풍부한 지식들을 공직자들에게 나누어 좋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부탁을 드리게 되었고, 생각대로 쾌히 승낙 을 해주셨다. 며칠 뒤 모 식당에서 지금의 이호경 회장, 배성혁 이사, 조광래 대표이사, 안국중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필자 등이 모이게 되었으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엔젤클럽이 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구FC미래기획실장
이도현



막상 시작은 하였지만 다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지금처럼 왕성한 활동은 기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들 본인 사업처럼 헌신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오늘날의 엔젤클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 대구FC 엔젤클럽은 프로축구단을 갖고 있는 모든 시·도로부터 부러움은 물론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엔젤클럽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고향 대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동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얼마 전 모 프로구단에서 엔젤클럽에 대해 벤치마킹 하고 싶다며 우리 구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결론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였다. 왜냐하면 우리 엔젤클럽은 자기 사업처럼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는 그런 분들이 과연 있겠냐고 반문을 한 적이 있다.

대구는 과거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나라 사랑운동을 펼쳐온 자랑스러운 민족운동의 발상지이다. 이러한 민족정신을 잘 이어받은 대구시민이 위기에 처해 있는 대구FC를 살리기 위해 사랑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 여겨진다.

필자는 대구FC가 시민의 자긍심을 되찾고 전 시민이 주인이 되어 구단을 응원하는 명문구단으로 성장하는 날도 그다지 먼 미래는 아닐 것으로 확신한다.

클럽 발족시 회원 겨우 50여 명으로 시작한 것이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 목표회원 1004명(엔젤의 의미 천사)에 근접하는 850여 명의 회원이 이미 가입되어 있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가입 회원 유형도 기본 회원인 엔젤회원, 매년 1천만원 이상 기부하는 다이아몬드 회원, 전 가족이 회원으로 가입한 가족회원, 부부회원, 소액기부자인 엔시오 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엔젤클럽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시티즌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대표적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시민사회의 진정한 산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단이 미래가 보장된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성장 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다.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큰 원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앞장서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엔젤클럽은 분명 우리 지역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구를 건설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본다.



엔젤클럽회원에게 바라는 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엔젤클럽 회원여러분!

저는 엔젤 52호 회원 임태건입니다.

2016년 5월경 친한 지인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을 후원하는 엔젤클럽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구FC는 2부 챌린저 소속이었고, 특별히 내세울만한 이슈도 없을때라 연간 후원금을 100만원씩 내면서 엔젤클럽에 가입해야한다는 특별한 목적의식과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구단에 엔젤가입을 통보하였는지 당시 구단에서 김용하 부장(前 대구FC사무국장)이

가입서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김용하 부장과 30분정도 차를 마시면서 대구FC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엔젤클럽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가입서 작성에 이어 후원금을 냈습니다.

(기존 우리현재 엔젤님들도 지금까지는 제 상황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입 당시엔 연간 후원금 100만원 내면 입장권을 100장 후원해 주니까 '축구장에 축구구경이나 가자'하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생각이 바뀐 건 2016년 7월 창립총회와 같은 해 11월 엔젤클럽 비전 선포식을 하는 걸 본 이후부터입니다. 그 행사에서 엔젤클럽 회원들의 열정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열정이 저를 그저 '후원금 100만원만 내면되겠지'하는 방관자의 자세에서 엔젤클럽의 진성맨으로 한걸음씩 다가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호경 회장님, 강병규 운영본부장님, 진성엔젤 몇 분을 만나면서부터 대구FC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대구시민'의 일원으로 대구를 위해 작은 보탬이라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작년 마지막게임 후반 종료 직전 세징야의 멋진 중거리슛으로 대구FC가 1 : 0으로 이기면서 1부로 승격 되던 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흥분했는지 아직도 그때의 전율이 느껴지곤 한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다. '나'가 아닌 '우리'로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엔젤클럽이 우리나라 축구계에 큰 변화와 이슈의 중심이 되겠구나'라고요.

그때부터 저 자신은 회사일보다 엔젤클럽 일이 우선이 되었고 (자칭 대구FC 엔젤클럽의 조희팔이 되었습니다) 대구FC의 엔젤클럽의 회원이라는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대구출신도 아닙니다.

대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대구시민이 되었고, 대구에서 엔젤클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축구가 좋다! 대구가 좋다! 대구FC 엔젤클럽이 좋다'란 슬로건처럼 영원한 대구시민, 영원한 엔젤회원이 될 것입니다.

엔젤 회원여러분!

대구시민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와 변화의 주인공은 우리 엔젤클럽이라 생각합니다.

축구장에 나오셔서 소리 한번 질러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팀 대구FC를 응원해 보십시오!

왜, 내가 엔젤이 되어야하고, 영원한 엔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 가슴으로 느끼실 겁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엔젤클럽!" "대구FC 엔젤 파이팅!" 



Angel Club

대구FC 엔젤클럽

History of Angel



2013

9월 이호경(당시 현암건설 대표이사), 강병규(당시 대구시 감사관) 대구FC의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 대화하던 중 시민구단인 대구FC의 재정에는 시민도 동참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호경은 시민의 참여방법으로 '릴레이 후원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었다.

2014

11월 이도현 대구시 체육진흥과장은 강병규에게 대구FC 재정 조달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청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강병규는 '릴레이 후원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었다.

2015

1월 이호경·강병규·배성혁(성우기획 대표) 3명은 대어초밥 식당에서 '릴레이 후원사업'을 추진을 위한 공동발기인이 되었다. 이 자리에는 조광래 대구FC사장과 이도현 체육과장이 참석하였다.



2월 배장수(진명전력(주))대표이사를 1호 회원으로 영입하였다. 이때부터 '릴레이 후원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을 '엔젤'이라고 통칭하였다.

4월 엔젤회원 12명 대구FC 홈경기에 참석하였다. 권영진 대구FC 구단주는 축구장 센터서클에서 엔젤 회원에게 머플러를 걸어주며 격려했다.



12월 엔젤회원이 약 50명으로 늘어났다.



2016

대구FC 엔젤클럽 연혁

- 3월** 2016 대구FC 출정식에 엔젤 30명이 참가하였다.
권영진 구단주의 엔젤클럽 소개와 엔젤활동 소개가 있었다.
- 4월** 홈 개막식에 40명의 엔젤회원이 참석하였다.
엔젤클럽 결성. 이호경 회원을 엔젤 클럽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업무 추진을 위한 10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7월** 13일 인터불고호텔에서 엔젤 50명이 참석한 회원 상견례를 가졌다.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칙을 제정하고, 회장과 임원을 선출 하여 진정한 엔젤클럽을 결성하였다.
약 200여명의 엔젤 달성하였으며, 축구전용구장 개장 시 까지 1004 엔젤회원 가입으로 목표를 정하였다.
'후원금 납부와 회원추천'이외에 대구FC경기 관람 및 홍보 등 대구FC 홍보 활성화에도 적극 참여 하였다.
- 11월**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엔젤클럽의 출범 취지와 필요성을 한 번 더 알리고, 가치와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 12월** 사무실 개소식을 갖는 등 본격적 활동에 나선 엔젤 클럽은 사무실은 물론 각종 집기, 인테리어도 회원들이 직접 후원했다.



2017

- 2월** 9일 대구경북여성경제인연합회 요청으로 방문해 이사들을 상대로 엔젤클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설명 후 7명이 엔젤클럽 회원으로 바로 가입했다.
23일 대구보건대학 (총장 남성희) 대구FC프로축구단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 3월** 14일 엔젤클럽 사무국에서 팔공리더스모임의 전준달 회장 등 10명이 엔젤클럽에 가입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15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노기원 회장 등 11명이 엔젤클럽에 가입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기원 회장은 해마다 1천만원 이상을 후원하는 다이아몬드엔젤에 가입했다.
20일 계명대(총장 신일희)와 엔젤클럽은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응원단 모집, 입장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29일 첫 실무 조찬회의를 가졌다. 조찬회의에는 강병규 운영위원장, 김종두 사무총장, 안상영 이사, 안홍운 이사 등 6명이 참석해, 4월 9일 대구FC홈2차전 경기 응원단 모집과 최근 연이은 대학 및 단체 협약식의 효율적인 진행, 엔젤클럽 앱개발 등에 관한 토의를 했다.



2017

대구FC 엔젤클럽 연혁

- 3월** 29일 대구공업대학(총장 이별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1일 대구과학대학(총장 박준) 협약을 통해 대구과학대는 대구FC 프로축구단 응원을 위한 회원모집 및 응원단을 지원하고, 대구FC 엔젤클럽은 홈경기 입장권 및 응원도구지원, 엔젤 행사지원요원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대구FC프로축구단 발전에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 4월** 5일 (주)서한은 대구시민구단 대구FC 후원단체인 '대구FC 엔젤클럽'과 후원협약을 맺고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12일 NH 농협은행 대구본부와 축구를 매개체로 농협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협약식을 가졌다.
- 5월** 7일 (사) 한국 청년지도자 연합회 대구시지부 협약
26일 대구 지역의 기업 대표 3인을 초청하여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엄달현((주)대창엔코 대표), 이병훈(대구 스텐레스 대표), 허흥만(명성골프 대표) 이로써 대구FC 엔젤클럽은 조종수 (주)서한 대표이사 등 총 10여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게 됐다.
자문위원단은 연 100만원 이상의 후원과 함께, 대구FC 엔젤클럽이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시민후원단체로서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하며, 지역기업과 단체와의 협약 및 엔젤 릴레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9일 영남이공대학 (총장 박재훈) 협약을 통해 영남이공대는 대구FC 프로축구단 응원단 모집 및 홍보를 지원하며, 엔젤 클럽은 응원단에 경기관람권, 응원도구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 6월** 4일 대구경북 의사회축구단 30명이 단체로 대구FC 후원을 위한 엔젤클럽에 가입했다.행사는 이날 오후 3시 대구경북 의사회축구단원 30명의 대구FC엔젤클럽 단체가입 협약식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의사회축구단과 엔젤클럽 A,B팀의 친선경기 등으로 진행됐다.
9일 재단 법인 대구 오페라하우스와 협약을 맺었다.
전국 최초의 오페라하우스인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전국 최초의 시민스포츠 후원단체인 대구FC 엔젤클럽이 오늘 전국 최초로 문화와 체육의 융합을 시작한다는 특별한 의미있는 협약을 가졌다.
16일 대구 상공회의소와의 협약을 통해 대구상의는 엔젤클럽의 후원릴레이에 참여하고 회원기업의 대구FC 엔젤클럽 회원 가입 등을 지원기로 했다. 또 대구FC 엔젤클럽은 홈경기 입장권 및 응원 도구를 지원하고 홈경기 시 '대구 상공인의 날'을 지정하는 등 대구FC 프로축구단의 활성화와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협력기로 했다.
23일 소외계층에게 축구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또 다른 후원 천사의 길을 위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루도비코집에 연간 축구 관람이용권(400만원) 상당을 전달 하였다.

- 8월** 17일 대구한의대 협약식 체결
- 10월** 30일 엔젤데이 행사예정



대구FC 엔젤클럽 창립 결의문

우리는 대구FC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많은 시민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경기장을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스포츠 경기의 활성화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믿는다.

저성장과 취업난의 시대에 고용과 부가가치창출 등

경제유발효과도 크다고 믿는다.

시민구단 대구FC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엔젤이라는 이름으로 대구FC에 대한

재정후원과 홍보에 나서기로 하였다.

더 많은 시민들이 엔젤에 참여하는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25일 오늘 엔젤클럽을 결성하였다.

우리는 클럽을 창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한다.

- ◆ 우리는 대구FC의 재정후원에 동참한다.
- ◆ 우리는 대구FC의 재정후원에 동참할 회원을 추천한다.
- ◆ 우리는 대구FC의 경기를 더 자주 관람하고 홍보한다.
- ◆ 우리는 건전한 스포츠문화의식 확산의 선도자 역할을 한다.
- ◆ 우리는 대구FC의 운영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 ◆ 우리는 어떠한 정치세력과의 결탁하지 않는다.
- ◆ 우리는 엔젤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구FC엔젤클럽 회원일동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안내

■ 가입방법

- ▶ 가입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가입신청서 엔젤클럽 사무국 보관
- ▶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으로 문의
 - Tel : (053) 602-7307
 - Fax : (053) 602-7306
 - Phone : 010-3861-4505 (대구FC 엔젤클럽 사무총장 : 김종두)

■ 후원금액

- ▶ 100만 원 이상 희망하시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 후원금 처리방법
 - 후원금은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지급되고 실제로 입장권이 지급되므로 사업장의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 ※ 참고 : 대구FC가 시민의 힘으로 창단한 시민구단으로, 주식회사이다보니 상법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 결제방법

- ▶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카드 결제 시 엔젤클럽 사무실 또는 홈경기 시 엔젤상견례장소)
- ▶ 계좌번호: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가입 혜택 안내

- ▶ 기념품 : 엔젤클럽 자켓, 머플러, 사인볼(1회)
- ▶ 엔젤회원 확인 및 홈경기 관람 ID 카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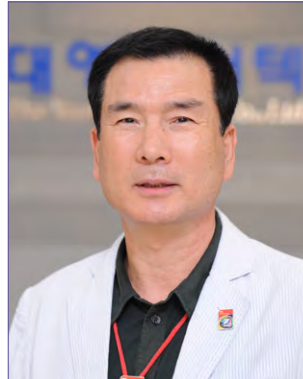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다이아몬드 엔젤



삼보모터스(주) 이재하



대영코어텍(주) 정태호



(주)태왕이앤씨 노기원



(주)서한 조종수



삼익THK(주) 진영환



한국OSG(주) 정태일



(주)세신정밀 이익재



금북주 김동구

엔젤클럽 자문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진영환	삼익THK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장익현	딤프 이사장 / 前 대구변호사회 회장
조종수	주식회사 서한 회장	주대중	함창장학재단 이사장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	엄달현	주식회사 대창엠코 대표이사
도재영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	이병훈	주식회사 대구스테인레스 대표이사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총장 / 前 대구은행장	하홍만	명성골프 대표이사
진덕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박윤경	경북광유 대표이사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민수	세영회계법인	김광수	(주)한맥창호	김영업	지디종합건설(주)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김국경	(주)세영디앤씨	김영주	
강병호	(주)신경일염직	김규일	(주)세원이앤지	김영준	변호사
강보철	일진수지	김규정	삼성증권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강삼동	(주)에이치	김규혁	포위시스템	김영택	일월건설
강신일	(주)대영리츠건설	김기철		김영화	(주)영화
강영철	에스에스엘엔(주)	김길생	(주)동화주택	김영희	구병원
강의원	(주)일신건설엔지니어링	김대경		김완준	(주)제아이디
강일규	대서산업(주)	김대엽	(주)대영레테크	김용규	창녕 참우 축산
강일만	(주)세신엔지니어링	김택신	(주)우진비철	김용범	(주)에스알
강정숙	동재건설	김택영	성서연합외과의원	김용봉	(주)와이즈리
강정영	뉴스웨이 대구경북	김동규	(주)범서	김용식	(주)청맥산업
강준기	포머스	김동우	World First	김용찬	(주)보광건설
강태중	(주)한도엔지니어링	김말분		김우일	김샘 대표
강해구	경민테크	김명용	(주)명성	김윤곤	부성주식회사
고경집		김명웅	DGB 생명 AM사업부	김윤찬	CREDIT AGRICOLE & investment Bank
고삼규	보광병원 병원장	김명진	한신타수가스	김재엽	로이건설
공영우	동성건설	김무길	삼성전자 무비스 B2B	김재필	(주)주안
공윤옥	선진회계법인	김미숙	주인	김재필	산록 도시락
공인옥	(주)백향에스엔피	김민석	(주)서한	김재혁	잉글리쉬 유나이티드
곽기철	지우C&D	김민선		김재홍	대구광역시 하키펠 / 대호약품
곽덕섭	(주)태명건설	김민지	스퍼지김교육	김정수	로즈마리 여성산부인과
곽동호	곽치과병원	김민태	제이와이 건설	김종구	세광종합상사
곽신혁	eco farm(주)	김범대	미플러스피부과	김종선	주식회사 신흥버스
곽재환	(주)중산도시개발	김병렬	오성고속관광(주)	김종철	(주)우인바스텍
곽재훈	운경재단	김병오	필즈학원	김종호	(주)케이원
곽준성	삼성전자	김상걸	(주)미래세한 감정평가 법인 대구지사	김종호	(주)케이원
구미숙		김상덕	부경TS	김종환	(주)메디피아엔씨
구본도	렉시스 대구	김상도		김종훈	영남대학교의료원
권경훈	강북연합정형외과	김상섭	대구신문	김종희	웨딩하모니
권광		김상수	청운신협	김주성	광개토병원
권대열	(주)부원	김상완	(주)한맥종합기술공사	김주형	웨딩쿨
권병균	행복을 심는 치과	김상우	세무법인 대한	김준홍	
권석원	동진건설(주)	김상훈	(주)모던테크	김지건	
권승진	인터불고CC	김석	삼덕아스콘	김지미	(주)시마
권승진	경산인터불고CC	김석호	한도식품	김진일	무창산업
권시원	(주)중산도시개발	김선일	(주)상일종합관리	김창식	(주)경북합판
권영갑	(주)EMS	김성렬	(주)대성건설	김창욱	
권오섭	(주)청구푸드시스템	김성열	(주)아나	김창호	
권오훈		김성준	G&B모터스(주)-스카니아 공식딜러	김창희	
권일경	(주)위드	김성호	(주)오상인터네셔널/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김춘희	
권장대	(주)세화정공	김세종	(주)천궁산업개발	김충환	한국패션센터
권재원	(주)아우노	김세중	비즈니스컨설팅	김태길	피엔에이
권정미	S라인 포톤 테라피	김수현		김태순	팔공온천 호텔
권준호	권준호 법률사무소	김숙현	세원 공인중개사	김태영	피엔에이
권혁	대구경북인재개발원 칠금	김승근	대구일보	김태훈	태경건설
권혁준	요셉 성형외과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판권	(주)명산
권호겸	(주)풍림	김승필	(주)삼성프린팅솔루션	김한수	마이스사업연구원
금윤식(법인)	(주)클든브릿지	김시보	백두산업	김해용	인덕염공(주)
김갑배	(주)동화주택건설 / (주)아름	김시승	(주)다원	김현만	서원종합건설(주)
김경배	리더스금융판매 (주)센트럴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김현수	대호기업
김고용	(주)명종스틸	김영만	홀인원 로스트볼	김호준	준 애니팜
김광배	(주)에스종합건설	김영식	영진건설	김홍근	건축사사무소 ADF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홍식(김웹)	대경대학교	박인호	(주)삼영이엔티	백운규	우림종합엔지니어링 /은마건설
김홍철		박재영		백운일	(주)백광테크
김홍수	이명E&C	박재현	(주)신우씨엔디	백을수	(주)국제ITS
김희곤	연세재활요양병원	박점희	플라워아트 / 한국화원협회	백해자	동인간호학원
나광무	엘리바덴 온천	박정기	진성, 일진종합건설	백현석	더블유병원
나상수		박정민	(주)간여행사	변창훈	대국한의대학교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박정배	(주)우방	변향숙	돈모닝 식당
남재현	리버원	박종철	(주)우일건설	서기수	즐거운 세상 / 바르미
노영균	안강삼성의원	박종호	(주)삼정 종합폐자장	서기승	동대구농협경제
노정섭	대어초밥	박종홍	금호개발	서상인	
노주호	(주)대성아이디	박종화	세보종합건설 (달서구 축구협회 회장)	서상엽	
노원영	(주)경북코지서비스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서상환	현대개발
노예영		박준규	(주)이노베이션	서숙영	
농협두류은행		박준두		서순옥	
농협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대구지역총국	박준섭	박준섭 법률사무소	서용교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대구총국	박중희	(주)ITS 스틸	서정우	신성기업 / 포그니코리아
도건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박지훈	농협중앙회 - 고령축산물공판장	서정욱	광고회사 MSC
도윤호	대영 코어텍 (주)	박진숙	동일가구	서정원	(주)대선
도재영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박진우	효성종합 건설	서종균	대경전력
두준옥		박찬력	경북봉투사	서준덕	신세계영상의학과의원
류영애	세무사	박창오(박성수)	신화헬스엔드의료기	서중호	주)아진산업
류형우	대구예총	박철형	한빛에너지(주)	서찬곤	(주)E히안바다
류훈	중앙세라믹스	박태민	뮤지라운지 팬트하우스	서찬교	대원전기
문문문	(주)디에스백	박태정	주원조경	서태현	(주)산동개발
문영일	(주)태풍	박한석	팔공 컨트리 클럽	서형석	투썸플레이스 / 서린디앤씨
문재혁	(주)동아티오엘	박해대	(주)미래테크	성경환	성경건설
문현훈	덕영치과 기공소	박해동	경북 요양병원	성달표	현대통상 대표
민재철	(주)뛰는아이들	박해인	유진제지	성무용	정일건설(주)/삼역건설(주)
민준홍	한국PIPE	박현경		성무용	대구은행 부행장
박경국	(주)성우아이디	박현주	장아푸드	성병철	(주)디자인JSP
박경환	박경환 변호사 사무실	박혜영		성석훈	주)대덕건설/ 주)명덕건설
박관식	명진BS치과	박혜은		성수환	신영남산업 주식회사
박기자	(주)무영	박희경	도미니크	소정호	(주)미래테크
박대진	(주) 이비팜	반용석	반치과	손동태	(주)미래테크
박동술	성동제동의원	반정옥	미르건축	손동현	동현케이블
박미경	삼성요양센터/자인삼성요양센터	방우정	리더스(명예회원)	손민호	동서가스
박병규		배명수	근영토건	손병갑	로타리3700지구/(주)성도
박병욱	체인사업본부 / 대한구국보훈회	배문구	승창침장	손상명	
박석현	(주)TBC 대구방송	배석우	에스와이하우징 대구경북총판 / 세종정공	손상주	전한라장사
박성욱	(주)삼송BNC	배성혁	예술기획 성우	손성대	성진포머
박성준	(주)미래테크	배영호	영신F&C	손수완	(주)수경
박성훈	(주)피닉스건설	배우균	카이도 코리아	손영훈	성도백
박성희	(주)AK메디 / (주)한울홀딩스	배인규	한남라이팅	손원배	태명약업사
박세정	링크샵 커뮤니케이션	배인호	성호건설(주)/ 경북건설협회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
박소민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협의회	배장수	진명전력 주식회사	손주옥	(주)한국재무설계
박소이	(주)미래테크	배태관	백산자카드(주)	손중배	유레가
박승국	이사아요양병원	배효삼	(주)달구벌석전	손지영	삼성디지털프라자 수성점
박신영	하나투어	백건호	(주)경동BK	손형문	대진렌탈
박영석	계명대학교 교수	백덕열	지오 종합건설	송남희	본죽 시지점
박우용	(주)대산라이팅	백무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송대선	
박우호	세영회계법인	백순정	네추럴프리스	송미향	(주)현대미주여행사
박운탁		백영기	아름다운 사람들	송석훈	우리연합의원
박은이	(주)슈만 /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지원단	백용환	미래테크	송원배	(주)대영씨앤디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송정우		윤용득	교통시스템 연구소	이원찬	주)아진산업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윤창권	그린에어시스템	이운성	대구동부순환도로(주)
송재은		윤태경	바로본병원	이윤하	그린사이언스
송해선	하나은행	윤형돈	미래에셋대우	이윤환	(주)미래테크
신경수	(주)부창솔라	은영기	한솔개발	이은준	(주)SJ홀딩스
신규창	신규창내과의원	이갑열		이익재	(주)세진정밀
신기영	ARSTROMA	이강태	한국교통정보	이인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 화인쿠치네
신선영	대구 미래대학	이경곤	주식회사 유성기초	이재덕	금성기구
신성필	(주)세양	이경호	(주)한길산업	이재덕	한국인의 밥상
신영재	계명대학교	이경훈	인터볼고 아티스클럽	이재익	가람테크
신용범	(주)한미산업	이기만	대경영상의학과	이재태	대구경북철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신재열	(주)안다미로	이기식	(주)현대스텐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신재천	대구영화인협회	이기화	행복을 심는 치과	이재훈	푸드윈
신철균	다모 건축사	이대형	세계실업(주)	이정미	아사무역
신철수	에나 인터스트리	이택록	(주)서보	이정주	
신현창	(주)옥일디앤씨 / 윈터폴스파랜드	이택현	디스이즈모든	이정훈	(주)TPC
신호철	플러스메드 / 삼성메디슨	이도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종경	(주)도원
신화섭	여행박사	이동건	Sk건설	이종복	삼해인더스트리
심건희	(주)천지재건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종은	택재건설
심상형		이동관	매일신문	이종원	KOG
심인철	동명테크원(주)	이동명	(주)자비스	이종현	(주)퓨리치
안상영	광진종합건설(주)	이동섭	미르코리아	이주형	(주)엘컴
안성용	(주)앤디스코나	이동열	참좋은요양병원	이준근	SSLM주식회사
안용모	경일대 석좌교수	이동현	(주)우행주 건축	이중락	대구영화협회
안조셉	(주)미래테크	이명현	달성고등학교 총동창회	이중원	경산상공회의소/ 원호금속(주)
안종수	태권도협회회장	이무철	금융기계(주)	이중호	(주)세진정밀
안태현	태원전력	이문열	대신공영	이지언	운경재단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이민화	(주)백강	이지완	명진BS치과
양대식	(주)약령시 사람들	이병훈	(주)대구스텐레스	이진백	G&B오토모빌(주)
양승섭	(주)대경	이복희	광덕전력	이진복	보람회계법인
엄경록	(주)대철	이상권	운경재단	이진호	주식회사 풍산기연
엄관식	엄관식 수학교습소	이상락	한국관광상품센터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엄달현	(주)대창엠코	이상열	(주)씨유컴퍼니	이창근	국동1급정비공장
엄태태	스타커뮤니케이션즈(주)	이상탁	반도광학(반도옵티컬)	이중경	JUWEL J
엄재국	(주)포맨	이상혁	(주)비토코리아 / 슬립리스인시애틀	이태훈	(주)에드엔퍼알스미스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이석우	(주)삼진씨앤씨	이한일	드림원장
여승훈	상록수재단	이선찬	진성테크	이현	코디박
여태용	세계 주류 대표	이성구	마리아난임클리닉	이현수	MG새마을금고
예영숙	삼성생명 명예전무	이성동	금보건설	이현득	변호사 사무실 이현득
예춘호	요셉성형외과	이성배	(주)에가	이형선	지성건설(주)
오무선	OMS뷰티살롱	이성태	주식회사 풋살스포츠	이형원	일성침장
오순덕		이성하	BL성형외과	이호경	월드산업 주식회사
오재완	(주)한국기네티코엔지니어링 / 에스엠인더스트리	이소윤		이호경	(주)대영에코건설
우경호	제일약품(주)	이승진	나우산업개발	이화선	(주)화선
우승민	스포츠와	이승현	(주)동서개발	이희준	SGI 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우영재	(주)한영	이시연	DESIGN GROUP KHAN	이희재	건축설계사무소
우외태		이암우	옛법사랑협동조합	인재현	
우종곤	영인 E&C	이영순		임건주	다운비엔에이
유다건	경대일어일문학과	이영우	(주)대광엔지니어링	임광호	열린치과
유명상	대구한국일보	이영준	선경건축자재센터	임상택	위드고
윤민환	교촌치킨 황금점 / 황금상가 연합회 회장	이영호		임영미	DGB생명
윤소원	한국일보	이원영	(주)평산개발	임영태	농협 사월지점
윤영수	(주)우정건축자재	이원우	한은 이앤씨	임용규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임재현	(주)현대목재산업	정하용	동진특수인쇄	최우각	(주)대성하이텍
임재형	(주)원규	정한채	청운신협	최우영	
임장광	KOG	정현수	(주)보국이앤씨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회
장기석	주호산업, 아인	정호균	메디피아	최은석	
장기식	JCI	정홍표	주)홍성건설	최익진	(주)풍국면
장기철	부강철강	조규현		최인철	
장도미	(주)Queens	조두석	(주)에드메이저	최인호	(주)명성티엠에스
장동렬	경산건설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최일경	명문텐탈
장만우	주식회사 대영금속	조민규		최재호	주식회사 골든크라운
장병배	범어 대성당	조민성	동영염직(주)	최종태	(주)솔트커뮤니케이션즈
장병환	삼보이데아	조병래	디자인해밀	최종혜	동양종합건설(주)
장성태	대한개발	조봉준	동일	최주희	변호사
장수미		조선용	유마스팀 메디컬 그룹	최준혁	
장영자	HILIVING	조성섭	(주)도원이앤씨	최장배	신항도시개발(주)
장원규	(주)화성	조성수	에이엘테크	최철환	광풍 퍼니처
장원용	대구MBC	조영래	(주)원형D&C	최태원	
장윤제	장윤제연합치과의원	조영만	제이에이치	최한교	디스이즈모든
장익현	장익현 변호사 사무실	조용호	(주)어팩시스템	최해동	
장계태	영남대학ROTC	조장형	(주)나래피움	최현희	(주)아르테코뮤이
장계화	(주)장영참우축산	조정옥	두손건축	최효욱/최재홍	(주)월성주택
장정숙	(주)자원환경	조준호	(주)태일	추재엽	(주)대영에코건설
장정호	장정호 법률사무소	조철래	(주)성지여행	추화엽	대성크린텍
장종욱	야곱의집 / 대구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	하달용	(주)삼건환경건설
장홍석	대원테크	조혜림		하승우	하승우내과
전성렬	동양OA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하윤수	한국공조
전수근	삼명종합상사	주윤수	토정건설(주) / 토정개발(주)	하중범	더 포스코샵
전영호	팔공신협	진경훈	(주)코앤코	하준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전용수	(주)신동아관광	진덕수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하태욱	대구과학대학교
전익상		진혜윤	(주)보강디엠에스 / 넥스트투어(주)	하호만	농협 두류지점
전중달	제이디 건설(주)	차인석	대성엔팩스	한금재	(주)한국테크
전태계	대구CC	차훈일	(주)샘초롱 농업회사법인	한상섭	대구 경상병원
전해영	화인건축사	천종열	(주)윤성건설	한영필	(주)에스피코리아
정경용	민 초심	천항구	연세클리닉	한화용	금도에너지(주)
정기욱		최경목	수성정비센터	함동호	에듀대표
정기출	삼성 대구법인지점	최고현	MBC보도국장	허용훈	(주)건화트랜슬로그
정모경	정원자카텍	최규락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주)	허원희	HK GOLF
정민교	대영모던텍(주)	최대식	(주)동경주산업개발	허정수	명진약품
정병창	세종건설	최동욱	(주)한라개발	허진걸	(주)영산전기
정성인	(주)GJ에셋	최명수	(주)오성종합주류	허필수	동성중공업
정소영	창성산업	최명환	정진사종합건축사사무소(주)	허홍만	명성골프 대표
정승진	한국OSG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정연일	한 패밀리 병원	최상대	화진기공사	현정규	
정영목	(주)대한피앤씨건설	최상무	오페라하우스 공연예술본부장	홍석환	소방감리원 기술단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최석훈	남산병원	홍영돈	에스와이패널(주)
정영철	제이스마인드의원	최신주	(주)연호개발 / 제이엠지개발	홍진수	
정우필	(주)서한	최성문	크레텍 책임	홍효정	
정원호	(주)삼화봉재	최상욱	(주)책임전력공사/한청내무부회장	황성	(주)진일공업
정장화	주성안전기	최성주	(주)동진금속	황세영	매천축산/조원한우
정재간	대구대학교	최승규	한청지도자연합회사무처장/이에스티산전	황영	(주)푸르맘
정재석	탐메디케어	최양원	(주)이루케미칼	황인혁	인성테이타
정재호	초록들코리아(주)	최영철	(주)삼코	황정현	
정정국	(주)지엠티앤씨	최영환	동명테크윈(주)	황종길	성신건설
정태경	(주)대성건설	최오원	(주)이렌트카		
정택수	매일에드	최용석	빠른감자탕		



사갈의 마을

대구 FC 엔젤클럽 매거진 「엔젤클럽」 창간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샤갈입니까?

일과 사랑 모두 성취한 현대미술의 '별'
그리운 고향의 꿈을 걸작에 담아낸 샤갈!
샤갈의 감성을 간직한 이 사대의 별에게
유럽에서 온 테라스하우스를 드립니다

유럽에서 온 테라스하우스

사갈의 마을



대영에코건설(주)
053)741-0866

샤갈의 마을 | The Original Townhouse

근대 영국귀족들이 도심과 전원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 교외에 지은 집이 타운하우스이다. 샤갈의 마을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합친 한국형 타운하우스의 원본을 지향한다. 도시와 자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 나와 우리의 어울림을 통해 삶과 삶의 균형을 이룬 신주거문화를 열어간다.



Daegu FC Report

“땀에 젖은 유니폼, 그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전부다”
- 폴 스콜스(잉글랜드, 前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2017
축구
리거





대구 FC 전용구장 어떻게 되고 있나?

대구 시민운동장이 도심복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되는 가운데 옛 축구장이 대구FC축구전용구장으로 탈바꿈한다. 북구 고성동 시민운동장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았던 프로 야구 홈 경기장이 수성구로 이전하면서 도심공동화 우려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운동장 인근 콤플렉스를 지난해부터 내년 말까지 총 596억원을 들여 새롭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발표한 개발 기본 방향에 따르면 대구FC 엔젤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주경기장은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해 FC전용구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기존 시민야구장은 사회인 야구장으로, 테니스장은 다양한 종목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 활용도가 높은 빙상장, 시민체육관은 존치하고 씨름장은 스퀘시 경기장으로 바뀌게 된다. 나머지 공간도 산책로와 야외운동시설 등으로 만들어 공원개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운동, 문화, 휴식 운동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축구전용구장이 될 대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은 연면적 25,261㎡, 관람석 1만2천석 수용인원 1만5천명이 가능한 규모로 변경된다.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해 2018년 12월 준공목표로 2017년 6월 현재 공사 입찰 중이다. 특히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의 종합경기장의 단점인 관람시아 원거리 등 흥미 유발 부족으로 관중 격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전용경기장이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돼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라운드와 관람석과의 거리가 7m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땀방울까지 볼 수 있어 박진감 넘치는 축구를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설계 컨셉트는 '숲'으로 숲의 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최대한 설계에 반영시키는 방식으로 건립된다. 지붕도 4면 설치를 통해 햇빛과 비를 차단하는 한편 민원이 우려되던 경기장 인근 주택가에 소음이 퍼지지 않는 건물론 관중 함성과 열기도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 중에선 본부석 출입구 부분만 일부 남고, 본부석이나 관람석 등은 모두 철거돼 새롭게 만들어진다. 관람석은 국내 최초로 경량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데 고정식 일반석과 접이식 고급석 및 가족과 연인을 위한 테이블석 등으로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8개의 스카ibox 및 대구FC 후원자들을 위한 엔젤클럽 공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전용구장뿐 아니라 대구FC 클럽하우스도 수성구 대흥동 대구체육공원 스포츠타운 내에 연면적 4천㎡, 지상 4층 규모로 마련된다. 클럽하우스가 마련되면 체계적인 훈련 및



대구FC 전용구장 조감도

주거 안정 등 심리적인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엔 합숙소는 물론 체력단련장, 트레이닝장, 식당 등이 자리하게 된다. 준공은 내년 말로 예상된다. 다만 대구FC 전용구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장(11만9천여㎡) 주경기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당초보다 100억원 넘게 늘어난 사업비 확보는 내년말 준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도 대구시가 2018년도 국비로 요청한 금액 42억원을 모두 수용하는 것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가 당초 350억원에서 490억원(국비 147억원·시비 343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설계 과정에서 안전, 공간 활용 등 이유로 시설 대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원래 시는 조명탑과 본부석 일부 시설을 남겨 다시 사용하려고 했다. 시가 올해까지 확보한 사업비는 국·시비를 합쳐 290억원.

대구시는 예산확보에 실패하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 등과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 돼 2018~19시즌은 전용구장에서 대구FC의 축구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제주 월드컵 경기장



2017 K리그 여름 이적시장 마감! 대구FC 후반기 대반격

- 신입선수 4인 영입
- 대구FC 후반기 공격(전현철, 주니오)과 수비(프라니치, 김동우)영입으로 반격에 나선다.

대구가 광주, 인천을 따돌리고 10위에 올라섰다. 지난 23라운드 광주와 인천이 각각 패배, 무승부를 기록한 사이 대구는 강원에 1대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대구의 시즌 첫 2연승과 원정 승리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공격진에서 에반드로, 세징야, 김선민의 활약이 눈부시다. 흔들리던 수비도 무실점으로 2연승에 힘을 보탤다. 이에 더해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수비수 프라니치, 김동우, 공격수 주니오, 전현철을 팀에 보강하면서 공수에 걸쳐 한층 안정된 전력을 갖췄다.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공수 전반에 걸쳐 안정된 전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한 신입선수 4인을 소개한다.

시즌 중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김동우, 전현철)

▶ 대구FC 수비 강화를 위해 시즌 중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 김동우



DF3. 김동우

등번호	3번
생년월일	1988년 2월 5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9cm / 87kg

경력

2010~2012: FC서울 47경기
2013~2014: 경찰(현 아산) 38경기 4득점
2014~2017: FC서울 38경기 1득점 1도움
수상경력
K리그 클래식 우승: 2010, 2012, 2016
리그컵 우승: 2010

서울의 수비수 김동우는 임대 이적으로 대구의 유니폼을 입었다.

김동우는 189cm의 탁월한 신체조건을 활용한 제공권 장악과 발밀 기술, 커버 플레이 등이 장점인 베테랑 수비수다.

조선대를 졸업하고 2010년 FC서울에서 프로에 데뷔했으며, 경찰청과 FC서울에서 통산 125경기에 나서 5득점 1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2010년, 2012년, 2016년에는 팀이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힘을 보탤다.

김동우는 “빨리 팀에 적응해서 올 시즌 꼭 잔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 대구FC 공격 강화를 위해 시즌 중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 전현철



FW7. 전현철

등번호	7번
생년월일	1990년 7월 3일
전소속	부산아이파크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5cm / 72kg

경력

프로통산 112경기 12득점 3도움
2012: 성남일화(현 성남FC) 22경기 3득점
2013~2015: 전남드래곤즈 71경기 9득점 1도움
2016~2017: 부산아이파크 19경기 2도움

대구FC가 미드필더 이재권과 맞트레이드로 부산 아이파크의 측면 공격수 전현철을 영입했다.

이번에 대구 유니폼을 입게 된 전현철의 별명은 폭주 기관차다. 저돌적인 돌파와 뒷 공간 침투, 공에 대한 집중력, 슈팅 등이 그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그의 강점을 살려 저돌적 돌파, 뒷 공간 침투, 슈팅에 능한 측면 공격 자원으로 활용 될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다. 아주 대 시절 U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성남에서 프로에 데뷔했고, 전남, 부산을 거치며 K리그 통산 112경기 12득점 3도움을 기록한 즉시 전력감이다.

대구 입단으로 다시 클래식 무대에 복귀한 전현철은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며 각오를 밝혔다.

그리고 돌아온 얼굴

▶ 힘과 기술 겸비한 최전방 공격수 주니오 재영입으로 공격진 강화

주니오는 187cm/85kg의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다. 신체조건을 활용한 헤딩, 몸싸움 능력이 뛰어나며, 빠른 발과 화려한 드리블, 골 결정력 등 힘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최전방 공격수이다.

브라질에서 프로에 데뷔해 벨기에 리그, 스위스 리그 등을 거쳤고, 2016시즌에는 태국 프리미어리그 파타야 유나이티드에서 29경기에 출전해 20득점을 터트리며 리그 득점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주니오는 올해 초 대구FC에 합류해 동계훈련을 모두 소화했으며, 1라운드 광주전에서 부상을 당해 이탈한 이후 약 4개월간의 재활과정을 거쳐 7월20일 다시 대구 유니폼을 입게됐다. 주니오는 “재활기간 동안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고, 다시는 다치지 않도록 재활에 온 힘을 쏟았다. 대구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새로운 얼굴

▶ 대구FC, '사커루' 아시아 정상급 측면 수비수 프라니치 영입 위협적인 오버래핑, 크로스, 중거리 슈팅이 강점인 오른쪽 측면 수비 자원

대구FC가 19일(수) '사커루'(호주 축구 국가대표팀) 측면 수비수 프라니치를 영입하며 수비진을 보강했다. 이반 프라니치는 견고한 수비력과 공격적인 재능을 모두 갖춘 오른쪽 측면 수비 자원이다. 특히 위협적인 오버래핑과 패스, 슈팅 등이 강점이며, 동료 선수들과의 협력 플레이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라니치는 '사커루'(호주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축 수비수다. 2012년 국가대표로 처음 데뷔했고, 2014 브라질 월드컵과 2015 아시안컵 등을 거치며 A매치 20경기에 나서 맹활약했다. 특히 2015 아시안컵 결승전 선발 명단에 포함되어 한국과 맞대결을 펼쳐 국내 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프라니치는 어린 시절 멜버른 나이츠, 오클리 캐논스 등 호주 지역 프로리그를 거치며 기량을 키웠으며, 2009년 A리그 브리즈번 로어에 입단해 6년간 115경기 11득점을 기록하는 등 호주 최고의 풀백으로 자리 잡았다. 이 활약으로 A리그 올스타 팀, PFA의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고, 세 차례 팀의 A리그 우승을 이끈 바 있다. 2012년과 2013년 브리즈번 로어 소속으로 ACL(AFC 챔피언스 리그) 7경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러시아 FC 토르페도 모스크바(4경기), 멜버른 시티(39경기 1득점)를 거쳐 이번에 대구 유니폼을 입게 됐다. 프라니치는 “K리그가 수준 높은 리그인 것을 잘 알고 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기 위해 멜버른 시티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 대구 FC가 가능한 높은 위치에서 시즌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FW9. 주니오

등번호	9번
생년월일	1986년 12월 30일
국적	브라질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87cm/85kg

경력

2009 : ABC(브라질 전국 2부) / 20경기 11득점
2010~2011 : Beerschot A.C.(벨기에 1부) / 18경기 7득점
2011~2012 : Lausanne-Sport(스위스 1부) / 20경기 4득점
2012 : Guarani(브라질 전국 2부) / 9경기 1득점
2013 : Tombense(브라질 미나스 주 리그) / 13경기 8득점
2013 : América RN(브라질 전국 2부) / 15경기 3득점
2014 : Tombense(브라질 미나스 주 리그) / 11경기 2득점
2014 : América Mineiro(브라질 전국 2부) / 17경기 2득점
2015 : Oeste(브라질 전국 2부) / 41경기 7득점
2016 : Pattaya United(태국 1부) / 29경기 20득점



DF77. 프라니치

등번호	77번
생년월일	1986년 12월 30일
국적	호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0cm / 77kg

경력

2005~2006: St Albans Saints SC(호주 빅토리아 주리그) 39경기 5득점
2007~2008: Melbourne Knights FC(호주 빅토리아 주리그) 50경기 9득점
2009: Oakleigh Cannons(호주 빅토리아 주리그) 17경기 2득점
2009~2014: Brisbane Roar(호주 A리그) 115경기 11득점
2014~2015: FC Torpedo Moscow(러시아 1부) 4경기
2015~2017: Melbourne City(호주 A리그) 39경기 1득점
대표경력
2015 AFC 아시안컵 우승
호주 A리그 우승(Champion): 2010~2011, 2011~2012, 2013~2014
호주 A리그 정규리그 우승(Premier): 2010~2011, 2013~2014, 2013~2014
호주 A리그 올스타: 2010~2011
Brisbane Roar Member's Player of the Year: 2012-13
PFA Team of the Year: 2010-11 A-League,
2013-14 A-League 9경기 2도움



대구 입단한 '사커루' 프라니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된다.”



지난 23라운드 강원전 한국 무대 데뷔전 치러 입단 인터뷰 공개, 응원 메시지 이벤트 실시

지난 강원전 원정경기에서 한국 무대 데뷔전을 치른 '사커루' 프라니치가 26일(화) 영상을 통해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대구는 프라니치의 입단을 기념해 응원 메시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인터뷰를 통해 프라니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팀의 클래식 잔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프라니치는 K리그에 대해 “예전부터 K리그를 봐왔고 좋은 리그라고 생각한다. 많은 친구들이 활약하고 있다. 몇몇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평했다. 또한 대구FC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 “K리그는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축구와는 다른 스타일이다. 이런 환경에서 나 스스로를 테스트 해보고 싶어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분이 좋다. 앞으로 있을 도전이 기대된다.”고 입단 소감을 밝힌 프라니치는 인터뷰를 마친 후 사인볼에 직접 사인을 해 팬들에게 전할 선물을 준비했다. 대구는 프라니치 인터뷰에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준 팬 중 한 명을 선정해 프라니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사인볼을 증정할 계획이다.

프라니치는 '사커루'의 주축 수비수다. 2012년 국가대표로 처음 데뷔했고, 2014 브라질 월드컵과 2015 아시안컵 등을 거치며 A매치 20경기에 나서 맹활약했다. 특히 2015 아시안컵 결승전 선발 명단에 포함되어 한국과 맞대결을 펼쳐 국내 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프라니치 일문일답』

◆ 한국의 첫 인상은?

매우 흥미롭다. 도착해 경기장을 보고 걸어봤는데 매우 큰 규모의 경기장이다. 예전부터 K리그를 봐왔고 좋은 리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활약하고 있다. 그래서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 대구FC에 대해 예전부터 알고 있었나?

친구들이 있어 K리그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대구뿐만 아니라 K리그의 모든 팀을 알고 있다.

◆ 고향 멜버른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이유는?

K리그는 이때까지의 축구와는 다른 스타일이다. 좋은 리그이고 몇몇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환경에서 나 스스로를 테스트 해보고 싶어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 축구선수로서 본인의 장점은?

항상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다. 위, 아래를 자주 오가며 공격에 가담하는 것을 좋아한다. 공격과 수비 모두 자신 있다.

◆ 대구FC에서의 목표는?

대구가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위권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가능한 높은 위치에서 시즌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팀이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기 때문이다.

◆ 팬들에게 한마디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올해 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있을 도전이 기대됩니다. 팬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김선민 K리그 100경기 출전, 금자탑 달성

MF. 8 김선민
K LEAGUE
100
GAMES



7월 23일 강원 원정 경기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

대구FC의 주전 미드필더 김선민이 7월 23일 강원 전에 출장함으로써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의 금자탑을 달성했다.

김선민에게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은 남다른 의미이다. 수원공고 졸업 후 일본 프로축구 가이 나레 돗토리에 진출했던 김선민은 예원예술대, 울산현대미포조선(내셔널리그)을 거쳐 K리그에 입성하게 되었다. 울산현대미포조선에서 7경기 연속골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던 김선민은 2014 울산현대에 입단하였다. 이제 한 팀에 정착 하나 꿈을 찰나에 순간 또 그는 FC안양의 임대(안양에서 32경기 6득점 2어시스트 기록), 2016년 대전으로 옮겼다.

대전에서 30경기 4골 3도움으로 주전으로 활약하던 김선민은 2017 시즌을 앞두고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네 시즌 동안 네 팀을 돌며 어렵게 이뤄낸 100경기 출장이기에 김선민에게 더 의미있는 100경기 출장 기록이다.

늘 항상 한 팀에서 오래 뛰고 싶다는 김선민. 그는 어느 팀에서든 주전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줘 왔다. "유럽이나 해외 진출에 대한



MF8. 김선민

등번호	8번
생년월일	1991년 12월 12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68cm / 65kg

경력

2013 : 울산현대미포조선 / 16경기 11득점 3도움

2014 : 울산현대 / 18경기

2015 : FC안양 / 32경기 6득점 2도움

2016 : 대전시티즌 / 30경기 4득점 3도움

대표경력

2011 : 대한민국 U-20 대표팀

생각보다는 K리그에서 꾸준히 오래 뛰면서 팬들의 기억에 남고 싶어요. 300경기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2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우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는 그의 말에서 책임감 있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이 나타난다. 대구에서도 늘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00경기 출전 금자탑을 달성한 김선민이 대구에서 만들어갈 다양한 기록들을 기대해보자.





대구FC '원클럽맨' 조현우



대표팀 재승선 K리그 올스타전 참가

- ▶ 5월 22일(월) 발표,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명단에 포함
- ▶ 2013년 대구 입단, 다섯 시즌 째 맹활약한 '원클럽맨'
- ▶ 7월 29일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 기념 2017 K리그 올스타전 참가'

대구FC 골키퍼 조현우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됐다. 조현우는 지난 5월 22일(월)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발표된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대표팀 명단 24인에 포함됐다.

K리그 골키퍼로 유일하게 선발되어 주목받고 있는 조현우는 2013년 자유계약으로 대구FC에서 프로에 데뷔한 '원클럽맨'이다.

대구 소속으로 다섯 시즌 째 골문을 지키고 있으며, 지난 시즌에는 39경기에 나서 35골의 맹활약으로 팀 승격에 큰 힘을 보탤었다. K리그 통산 118경기에 나서 143실점, 1도움을 기록했으며, 2015시즌과 2016시즌 2년 연속 K리그 챌린지 '베스트 11' GK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조현우는 189cm, 75kg의 좋은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순발력이 뛰어나고 경기운영 능력, 골킥, 선방 능력 등을 갖췄다. U-19, 20, 23 등 연령대별 대표팀을 거쳤으며, 2015년에도 대표팀의 부름을 받아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다.

국가대표팀에 재승선 하게 된 조현우는 "지난 번 대표팀에 선발됐을 때 감독님이 꼭 승격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최근 팀 성적이 좋지 않다. 이번 선발을 계기로 나 자신과 대구FC의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조현우와 대구FC를 알릴 수 있도록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대표팀 재승선 후 K리그에서 최고의 선방쇼를 보여주고 있는 조현우는 7월 29일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 기념 2017 K리그 올스타전'에도 울산 김용대와 골키퍼로 이름 올렸다.



올스타전 김용대와 교체로 후반 투입된 조현우는 골문 구석을 향한 상대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 측면에서 찬 강력한 오른발 슈팅 등을 번번이 몸을 던져 막아냈다. 특히 후반 22분 상대의 오른발 슈팅 손끝으로 처낸 명장면은 K리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GK21. 조현우

등번호	21번
생년월일	1991년 9월 25일
포지션	GK
신장 / 체중	189cm / 76kg

대표경력

2010년 : U-19 청소년 대표
2010~2011년 : U-20 청소년 대표
2011년 : U-23 올림픽 대표
2011년 : 유니버시아드 대표
2012년 : 덴소컵 대학선발 대표
2015년 :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력

2013년 : 대구FC / 14경기 22실점
2014년 : 대구FC / 15경기 21실점
2015년 : 대구FC / 41경기 49실점
2016년 : 대구FC / 39경기 35실점





DAEGU FC
DAEGU FOOTBALL CLUB

대구 FC 태양의 전사들



태양의 전사들



코치, (감독대행)
안드레

생년월일	1972년 11월 16일
국적	브라질

선수경력
1992 ~ 1995년 : Santos Futebol Clube(브라질)
1996 ~ 1997년 : Portuguesa Santista(브라질)
1998 ~ 1999년 : Marilia(브라질)
2000 ~ 2002년 : 안양 LG 치타스
2003 ~ 2004년 : Quindao(중국)
2005 ~ 2008년 : Clube Atletico Bragantino(브라질)

지도자 경력
2008 ~ 2012년 : Clube Atletico Bragantino(브라질) 코치
2012 ~ 2014년 : Clube Atletico Bragantino(브라질) 감독대행



코치,
최원권

생년월일	1981년 11월 8일
국적	브라질

경력
2000년 : 청소년 국가대표
2003년 : 동아시아 국가대표
2004년 : 아테네 올림픽 국가대표
2000년 ~ 2008년 : FC서울 168경기 출전 3득점 14도움
2009년 ~ 2010년 : 광주상무 50경기 출전 8득점 5도움
2011년 ~ 2013년 : 제주Utd 44경기 출전
2013년 : 대구FC 12경기 출전
2014년 : 대구FC 15경기 출전 1득점
2015년 : 대구FC 2경기

수상
K리그 우승 1회(2000년)
K리그 준우승 2회(2001년), (2002년)
슈퍼컵 우승 1회(2001년)
리그컵 우승 1회(2001년)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 준우승 1회(2002년)



GK코치,
이용발

생년월일	1973년 3월 15일
학력	동아대학교

지도자경력
2009 ~ 2013년 : 연세대학교
2014년 : 인천유나이티드

수상경력
1999 ~ 2002년 : 전경기 무교체 특별상
2000년 : K리그 스포츠 조전 베스트 11



코치,
베네디토

생년월일	1974년 3월 5일
국적	브라질

주요경력
1993~1995: Esporte Clube Santo André(브라질) 피지컬 코치
1996: Sport Club Corinthians Paulista(브라질) 피지컬 코치
1997~1998: Associação Portuguesa de Desportos(브라질) 피지컬 코치
1999: Alecrim Futebol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1999~2000: União Futebol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1~2002: Esporte Clube São Bento(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3: Nacional Atlético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4: Clube Atlético Juventus(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5: Clube Atlético Bragantino(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6: Associação Portuguesa de Desportos(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7: Paulista Futebol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7: América Futebol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7: Clube Atlético Bragantino(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8~2014: Clube Atlético Bragantino(브라질) 피지컬 코치
2014: Criciúma Esporte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15: Goiás Esporte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16: Atlético Clube Goianiense(브라질) 피지컬 코치



전력분석/통역,
이중현

생년월일	1987년 1월 8일
학력	과천초등학교

선수경력
2004~2006 Americano Futebol Clube (브라질)
2007 Marilia Atletico Clube (브라질)
2008 Atlético Sorocaba (브라질)
2010년 : 경남FC
2011년 : 인천유나이티드
2012~2014년 : 김해시청 축구단



트레이너,
노현욱

생년월일	1970년 3월 13일
학력	대구보건대학교

주요경력
삼성라이온즈 닥터
한화이글즈 닥터
원 휘트니스센터 관리팀장



트레이너,
박해승

생년월일	1984년 3월 11일
학력	대구대학교

주요경력
대구FC U-18(현풍고) 트레이너



트레이너,
이대균

생년월일	1990년 8월 8일
학력	대구의한대

주요경력
영덕고등학교 축구부 트레이너
부산외국어대학교 축구부 트레이너
LG트윈스 트레이너 인턴십
신평고등학교 축구부 트레이너



장비담당,
고강훈

생년월일	1994년 8월 16일
학력	계명대학교 스포츠마케팅학과

경력
2013 : 대구FC 크루 2기
2016 : 대구FC 크루 5기
2017 : 대구FC 크루 6기

수상경력
2013 : 대구FC 크루 2기 공로상
2016 : 대구FC 크루 5기 최우수상



대구 FC 태양의 전사들



GK1.
이양중

등번호	1번
생년월일	1989년 07월 17일
포지션	GK
신장 / 체중	191cm / 86kg

경력
2011년 : 대구FC / 1경기 1실점
2012년 : 대구FC / 2경기 1실점
2013년 : 대구FC / 24경기 35실점
2014년 : 대구FC / 19경기 21실점
2015년 : 대구FC / 1경기
2016년 : 대구FC / 1경기 1실점
2016년 : 대구FC(R리그) / 8경기 7실점



GK21.
조현우

등번호	21번
생년월일	1991년 9월 25일
포지션	GK
신장 / 체중	189cm / 76kg

대표경력
2010년 : U-19 청소년 대표
2010~2011년 : U-20 청소년 대표
2011년 : U-23 올림픽 대표
2011년 : 유니버시아드 대표
2012년 : 덴소컵 대학선발 대표
2015년 :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력
2013년 : 대구FC / 14경기 22실점
2014년 : 대구FC / 15경기 21실점
2015년 : 대구FC / 41경기 49실점
2016년 : 대구FC / 39경기 35실점



GK31.
이현우

등번호	31번
생년월일	1994년 3월 20일
포지션	GK
신장 / 체중	185cm / 72kg

경력
2013: 전국 1, 2학년 대학대회
2014: 전국 1, 2학년 대학대회 우승
2014: 춘계대학연맹전 3위
2015: 춘계대학연맹전 3위
2015: U리그 왕중왕전 우승
2016: 춘계대학연맹전 3위
수상경력
2014: 전국 1, 2학년 대학대회 GK상
2015: U리그 왕중왕전 GK상



DF4.
박태홍

등번호	4번
생년월일	1991년 3월 25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5cm / 77kg

대표경력
2007년 : U-16 대표팀
2008~2009년 : U-18 대표팀
2010~2011년 : U-20 대표팀
경력
2011~2013년 : 요코하마FC(일본) / 28경기
2013~2014년 : 요코하마FC(홍콩) / 17경기
2014년 : 카탈레 도아마(일본) / 12경기
2015년 : 요코하마FC(일본) / 35경기 1득점
2016년 : 대구FC / 38경기 1득점



DF5.
홍정운

등번호	5번
생년월일	1994년 11월 29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7cm / 76kg

대표경력
2015년 : U-22 대표팀
2015년 : 제28회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 축구 은메달
경력
2016년 : 대구FC / 20경기
2016년 : 대구FC(R리그) / 7경기



DF6.
한희훈

등번호	6번
생년월일	1990년 8월 10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3cm / 78kg

경력
2013~2014 : 에히메FC(일본) / 34경기 2득점
2015 : 도치기SC(일본) / 31경기 1득점
2016 : 부천FC / 40경기 3득점
수상경력
2011 : 전국대학축구대회 우수 선수상



GK41.
김현성

등번호	41번
생년월일	1993년 3월 28일
포지션	GK
신장 / 체중	193cm / 87kg

경력
2015~2016 : 서울 이랜드 FC / 1경기 4실점
2016년 : 서울 이랜드 FC(R리그) / 10경기 5실점



DF2.
오광진

등번호	2번
생년월일	1987년 6월 4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72cm / 64kg

경력
2009~2011년 : 울산현대
2011~2012년 : 경남FC
2012~2013년 : 김해시청 / 21경기
2013~2015년 : 수원FC / 44경기 2도움
2016년 : 대구FC / 7경기
2016년 : 대구FC(R리그) / 4경기



DF3.
김동우

등번호	3번
생년월일	1988년 2월 5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9cm / 87kg

경력
2010~2012 : FC서울 47경기
2013~2014 : 경찰(현 아산) 38경기 4득점
2014~2017 : FC서울 38경기 1득점 1도움
수상경력
리그컵 우승 : 2010
K리그 클래식 우승 : 2010, 2012, 2016



DF16.
김동진

등번호	16번
생년월일	1992년 12월 28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77cm / 74kg

국가대표경력
2008년 : AFC U-16 챔피언십 본선 대표
2009년 : FIFA U-17 월드컵 본선 대표
경력
2014년 : 대구FC / 10경기
2015년 : 대구FC / 18경기 1도움
2016년 : 대구FC / 36경기



DF19.
박세진

등번호	19번
생년월일	1995년 12월 15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76cm / 67kg

대표경력
2014 : U-19 대표팀
수상경력
2015 : U리그 권역 우승
2015 :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
경력
2016년 : 대구FC / 30경기 2득점 4도움



DF20.
황재원

등번호	20번
생년월일	1981년 4월 13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6cm / 80kg

대표경력
2008~2011년 : 국가대표팀 11경기 1득점
경력
2004~2010년 : 포항스틸러스 / 111경기 8득점 2도움
2010~2011년 : 수원삼성 / 18경기 2득점
2012~2013년 : 성남일화 / 9경기 1득점
2015년 : 충주합맥 / 23경기 2득점
2016년 : 대구FC / 27경기 2득점 1도움
수상경력
2007년 : K리그 시즌 베스트 11 선정



대구 FC 태양의 전사들



DF22.
정우재

등번호	22번
생년월일	1992년 6월 28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79cm / 70kg

경력
2011~2012년 : 초바이겐 가나자와
2014년 : 성남FC / 2경기
2015년 : 충주합맥 / 26경기 1득점 1도움
2016년 : 대구FC / 37경기 3득점 3도움



DF26.
김우석

등번호	26번
생년월일	1996년 8월 4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7cm / 74kg

대표경력
2014년 : U-18 대표팀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12경기



DF30.
김진혁

등번호	30번
생년월일	1993년 6월 3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7cm / 78kg

대표경력
2012년 AFC U-19 대표팀
2014년 덴소컵 대학 선발팀
2014년 U-21 중국 4개국 친선대회 대표팀
수상경력
2012년 U리그 권역 우승
2012년 제 43회 전국 추계 대학연맹전 3위
2013년 제 44회 전국 추계 대학연맹전 우승
2013년 U리그 권역 준우승
2014년 제 50회 전국 춘계 대학연맹전 우승
2014년 U리그 권역 우승
경력
2015년 : 대구FC / 12경기
2016년 : 울산현대미포조선 / 21경기 1득점 2도움



DF44.
박시운

등번호	44번
생년월일	1993년 5월 2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73cm / 62kg

경력
2016년 : 충주합맥(R리그) / 14경기



DF77.
프라니치

등번호	77번
생년월일	1987년 9월 10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0cm / 77kg

경력
2005~2006: St Albans Saints SC(호주 빅토리아 주리그) 39경기 5득점
2007~2008: Melbourne Knights FC(호주 빅토리아 주리그) 50경기 9득점
2009: Oakleigh Cannons(호주 빅토리아 주리그) 17경기 2득점
2009~2014: Brisbane Roar(호주 A리그) 115경기 11득점
2014~2015: FC Torpedo Moscow(러시아 1부) 4경기
2015~2017: Melbourne City(호주 A리그) 39경기 1득점
대표경력
2015 AFC 아시안컵 우승
호주 A리그 우승(Champion): 2010~2011, 2011~2012, 2013~2014
호주 A리그 정규리그 우승(Premier): 2010~2011, 2013~2014, 2013~2014
호주 A리그 올스타: 2010~2011
Brisbane Roar Member's Player of the Year: 2012-13
PFA Team of the Year: 2010-11 A-League,
2013-14 A-League 9경기 2도움



MF8.
김선민

등번호	8번
생년월일	1991년 12월 12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68cm / 65kg

경력
2013 : 울산현대미포조선 / 16경기 11득점 3도움
2014 : 울산현대 / 18경기
2015 : FC안양 / 32경기 6득점 2도움
2016 : 대전시타른 / 30경기 4득점 3도움

대표경력
2011 : 대한민국 U-20 대표팀



DF35.
서재민

등번호	35번
생년월일	1997년 12월 4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69cm / 60kg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15경기 2도움



DF39.
황준석

등번호	39번
생년월일	1996년 3월 19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8cm / 72kg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12경기 1득점



DF43.
조귀범

등번호	43번
생년월일	1996년 8월 9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4cm / 79kg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8경기 1득점



MF13.
우상호

등번호	13번
생년월일	1992년 12월 7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74cm / 74kg

경력
2006~2009 : 가시와레이솔 유스
2009~2014 : 메이카이대학
2015 : OFK Petrovac(몬테네그로 1부) / 29경기
2016년 : 대구FC / 17경기 1득점



MF25.
민경민

등번호	25번
생년월일	1996년 6월 4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83cm / 65kg

경력
2016 : U리그 권역 우승



MF27.
최수현

등번호	27번
생년월일	1993년 12월 9일
포지션	MF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2경기



대구 FC 태양의 전사들



MF28.
이해웅

등번호	28번
생년월일	1998년 11월 20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74cm / 68kg



MF29.
류재문

등번호	29번
생년월일	1993년 11월 8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84cm / 72kg

대표경력
2011년 : U-18 대표팀
2011년 : U-18 AFC 챔피언스리그 예선
2012년 : U-19 스페인 발렌시아 친선대회
2012년 : U-19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2013년 : U-20 대표팀
2014년 : 덴소컵 대학 선발팀

수상경력
2012년 : 제 48회 전국 춘계 대학연맹전 3위
2012년 : 제 43회 전국 추계 대학연맹전 우승
2012년 : U리그 챔피언십 3위
2013년 : 제 49회 전국 춘계 대학연맹전 3위
2013년 : U리그 권역 우승
2013년 : U리그 챔피언십 우승
2014년 : U리그 권역 우승

경력
2015년 : 대구FC / 36경기 6득점 3도움
2016년 : 대구FC / 5경기



MF34.
홍승현

등번호	34번
생년월일	1996년 12월 28일
포지션	MF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14경기 3득점 4도움



FW9.
주니오

등번호	9번
생년월일	1986년 12월 30일
국적	브라질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87cm/85kg

경력
2009 : ABC(브라질 전국 2부) / 20경기 11득점
2010~2011 : Beerschot A.C.(벨기에 1부) / 18경기 7득점
2011~2012 : Lausanne-Sport(스위스 1부) / 20경기 4득점
2012 : Guarani(브라질 전국 2부) / 9경기 1득점
2013 : Tombense(브라질 미나스 주 리그) / 13경기 8득점
2013 : América RN(브라질 전국 2부) / 15경기 3득점
2014 : Tombense(브라질 미나스 주 리그) / 11경기 2득점
2014 : América Mineiro(브라질 전국 2부) / 17경기 2득점
2015 : Oeste(브라질 전국 2부) / 41경기 7득점
2016 : Pattaya United(태국 1부) / 29경기 20득점



FW11.
세징야

등번호	11번
생년월일	1989년 11월 29일
국적	브라질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7cm / 74kg

경력
2010 : Osvaldo Cruz(브라질) / 8경기 6득점
2011~2012 : União Barbarense(브라질) / 40경기 13득점
2013 : Bragantino(브라질) / 14경기 2득점
2013 : União Barbarense(브라질) / 15경기 5득점
2013 ~ 2014 : Bragantino(브라질) / 49경기 7득점
2014 ~ 2015 : Clube Atlético Mineiro(브라질) / 12경기
2015 : Ponte Preta(브라질) / 28경기 4득점
2016 : 대구FC / 36경기 11득점 8도움



FW14.
신창무

등번호	14번
생년월일	1992년 9월 17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0cm / 67kg

수상경력
2010년 : 고교 웰치 리그 도움 1위
2012년 : 제8회 전국대학축구대회(1·2학년) 준우승
2012년 : 제8회 전국대학축구대회(1·2학년) 우수선수

경력
2014년 : 대구FC / 12경기 1도움
2015년 : 대구FC / 10경기
2016년 : 대구FC / 31경기 1득점



MF36.
박한빈

등번호	36번
생년월일	1997년 9월 21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82cm / 75kg

대표경력
2014년~2015년 : U-18 대표팀
2016년 : U-19 대표팀
2017년 : U-20 대표팀

수상경력
2016년 : JS컵 MVP

경력
2016년 : 대구FC / 6경기
2016년 : 대구FC(R리그) / 4경기 3도움



MF40.
조용재

등번호	40번
생년월일	1998년 1월 6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73cm / 68kg

대표경력
2014년~2015년 : U-18 대표팀
2016년 : U-19 대표팀
2017년 : U-20 대표팀

수상경력
2016년 : JS컵 MVP

경력
2016년 : 대구FC / 6경기
2016년 : 대구FC(R리그) / 4경기 3도움



FW7.
전현철

등번호	7번
생년월일	1990년 7월 3일
전소속	부산아이파크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5cm / 72kg

경력
프로통산 112경기 12득점 3도움
2016~2017 : 부산아이파크 19경기 2도움
2013~2015 : 전남드래곤즈 71경기 9득점 1도움
2012 : 성남일화(현 성남FC) 22경기 3득점



FW15.
한재웅

등번호	15번
생년월일	1984년 9월 28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8cm / 73kg

대표경력
2000 : U-16 대표팀
2003 : U-20 대표팀

경력
2003~2008 : 부산아이파크 / 21경기 2득점
2008~2011 : 대전시티즌 / 79경기 10득점 4도움
2012 : 전남드래곤즈 / 24경기 1도움
2013 : 인천유나이티드 / 3경기
2013 : 부리람 유나이티드
2014 : 울산현대 / 7경기 1도움
2015 : 홍콩레인저스
2016 : 대구FC / 15경기



FW17.
김경준

등번호	17번
생년월일	1996년 10월 1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8cm / 70kg

경력
2015 : U리그 권역 우승
2015 :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 2016 : 전국체전 우승
2016 : U리그 권역 우승
2016 : 추계 1, 2학년 대학대회 우승
2016 : 전국추계대학연맹전 우승

수상 경력
2016 : 추계대학연맹전 득점왕
2016 : 추계 1, 2학년 대회 득점왕
2016 : U리그 권역 득점왕



FW32.
정치인

등번호	32번
생년월일	1997년 8월 21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82cm / 71kg

수상 경력
2015년 : 전국체전 준우승

대표 경력
2016년 : U19 대표팀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11경기 6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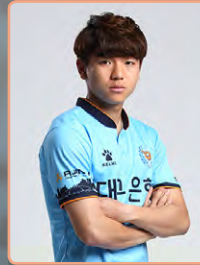


대구 FC 태양의 전사들



대구 FC 태양의 전사들

대구 FC 태양의 전사들



FW37.
김대원

등번호	37번
생년월일	1997년 2월 10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2cm / 64kg

대표경력

2014년~2015년 : U19 대표팀

경력

2016년 : 대구FC / 6경기 1득점

2016년 : 대구FC(리그) / 13경기 8득점 5도움



FW38.
정승원

등번호	38번
생년월일	1997년 2월 27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0cm / 68kg

경력

2016년 : 대구FC(리그) / 15경기 7득점 3도움



FW42.
손석용

등번호	42번
생년월일	1998년 9월 4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9cm / 72kg

수상경력

2016 : K리그2 유망선수상 수상

대표경력

2016 : U-18 대표팀



FW45.
정충엽

등번호	45번
생년월일	1998년 6월 2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84cm / 71kg

수상경력

2015 : 대통령배 축구대회 우승

2015 : 전국체전 동메달

2016 : 대통령배 축구대회 우승



FW99.
에반드로

등번호	99번
생년월일	1987년 9월 26일
국적	브라질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86cm / 79kg

경력

2008~2009 : Belenenses(포르투갈 1부)

2010 : União São João Esporte Clube(브라질 3부)

2010 : Sociedade Esportiva do Gama(브라질 3부)

2011 : São Carlos Futebol Clube(브라질 상파울루주 1부) 19경기 9득점

2012~2013 : Al-Jahra SC(쿠웨이트 1부)

2014 : Aparecidense(브라질 고아아스주 1부) 11경기 4득점

2015 : Oita Trinita(일본 2부) 22경기 3득점

2016 : FC Gifu(일본 2부) 23경기 5득점

*리그는 해당 연도 기준 / 일부 경력만 표기



DAEGU FC
DAEGU FOOTBALL CLUB





Half Time Talk

“새로운 지식만큼 매혹적인 것은 없다”

There is nothing so captivating as new knowledge.

-P. M. Latham

2017
축구
리구다





축구의 나라를 가다 ① 아르헨티나

축구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축구 형식으로 발전한 것은 19세기 중반인 1863년 영국 축구협회(FA)가 발족되면서부터다. 이후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 최고의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현재 UN이 인정하는 전 세계 245개국 중 3분의 2 정도인 156개 국가가 세계축구연맹(FIFA) 랭킹에 등재돼 있다.

그 중에서도 축구에 목숨을 거는 대표적인 대륙이 유럽과 중남미라고 할 수 있다.

총 대신 공으로 전쟁을 하는 지역에서부터 축구로 인해 실제 전쟁을 겪은 나라까지 축구는 이들 대륙에서 스포츠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들을 둘러본다.

아르헨티나

중남미에 있어서 축구는 전쟁이며 신분상승의 최대 도구이기도 하다. 어디를 가든 공을 차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중남미를 제외한 대륙에서 ‘골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폭스바겐 승용차가 중남미에선 ‘골(gol)’이란 이름을 달고 출시된다.

gol. 그렇다. 영어로는 goal로 쓰는 골이다. 중남미인들의 축구에 대한 사랑이 폭스바겐의 차 이름까지 바꿔 놓았다.

엔젤클럽 창간호는 20개 가까이 되는 공식 국제대회 타이틀을 갖고 있어 AC 밀란, FC 바르셀로나와 함께 세계적으로 명문팀 대열에 확실히 자리매김한 마라도나의 영원한 팀인 보카 주니어스를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둘러본다.

아열대에서 한대까지 1년의 모든 계절을 한 나라에서 다 체험할 수 있는 곳인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라플라타강 하구에 위치해 있으며 여름평균은 23~25°C, 겨울 평균은 10°C 정도다.

백인이 90% 정도로 많다. 나머지는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인 메스티조, 흑인, 아시아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원주민 비율은 2% 정도로 남미에서 가장 낮다. 공식 역사책엔 나와 있지 않지만 1800년대 후반 원주민 대학살의 결과라고 한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지만 정치불안정, 군사쿠데타 등으로 지금은 덩치가 부끄러울 정도로 추락한 나라로 바뀌어 버렸다. 지난 2015년 12월에 당선된 우파 마크리 대통령의 노력 여하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이나 박차고 올라가는 발판을 마련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정치만 빼면 이 세상 어느 곳 보다 모든 것을 갖춘 곳이 아르헨티나이며 그 중심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다.

남반구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지하철을 타거나 투어버스를 타는 것도 좋지만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해발 25m 란 점을 감안하면 자전거투어가 도시를 둘러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 물론 아르헨티나에는 볼거리만 있는 건 아니다.

탱고, 폴크로레, 사카레라 등 아르헨티나인들의 열정을 담은 음악과 방목한 쇠고기예 소금을 뿌려 숯불에 구운 아사도도 놓쳐선 안된다.

◆ 보카주니어 스타디움

아르헨티나는 신의 손 마라도나의 나라이기도 하다. 마라도나의 팀이 바로 보카주니어다.

아르헨티나 프로축구 1부리그에 소속된 프로축구 클럽으로, 1905년 4월 3일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들을 주축으로 창단됐다. 클럽 이름은 클럽이 탄생한 지명에서 따왔다.

1981년 마라도나를 영입해 메트로폴리탄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다.

1931년 프로 리그 출범 이후 한 번도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았다.

열성 팬이 많은 걸로도 유명하다. 보스테로스(bosteros) 즉 말뚝 청소부라고도 불리는 극성 팬들은 원래 스타디움이 있던 곳이 말뚝을 사용해 벽돌을 만들던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했다.

처음엔 라이벌인 리베르 팬들이 보카팬을 놀리기 위해 불렀지만 이젠 보카 팬들이 오히려 리베르팀을 말뚝으로 비하하면서 보스테로스라고 부른다.

이런 보스테로스들은 열 두 번째 선수란 의미로 누메로 도세(la numero 12) 혹은 라 도세(La Doce, La 12)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보스테로스들은 가족, 학교, 직장은 다 바꿔도 라보카의 고유 색깔은 못 바꾼다는 고집을 갖고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신혼 부촌인 푸에르토 마데이라를 상징하는 명물인 '여자의 다리'. 라플라타강을 가로 지른다.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점 엘 아테네오



▼ 남반구에서 맨 처음으로 만들어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하철 역 입구



▼ 아르헨티나 도심 풍경





▲ 라보카 거리, 형형색색의 건물은 1900년대 초반 이민자들이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받은 딱지의 색깔이 다른데서 유래한 것이다.



▲ 아르헨티나 국모이자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여(Don't cry for me Argentina)'의 주인공 에바 페론 에비타의 부조가 걸린 한 빌딩. 이 거리는 아르헨티나 독립기념일을 따 명명한 7월9일 거리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가다. 여기에는 고층 빌딩이 단 하나밖에 들어서 있지 않다. 그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다.



보카주니어의 색은 골든 라이트 블루. 코카콜라가 스폰서를 하고 대신 자신들의 색깔인 블랙 & 레드로 구장 외벽을 칠하려고 협상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한 일화는 유명하다. 지금은 이센백맥주가 주 스폰서로 푸른 색을 벗어나지 않은채 벽면 제일 위쪽을 장식하고 있다. 자전거투어 가이드인 페데리코도 수년째 연간회원권을 구입할 정도로 광팬이라고 했다. 경기를 보러가면 같은 자리를 해마다 끊는 사람이 많아 자연스럽게 친한 사이가 된다고. 한편 스타디움은 한쪽 끝이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푹 잘려 있어 '초콜릿 상자'라는 뜻의 '라봄보네라'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5만여명이 입장할 수 있는 곳이다.

◆ 라 보카

'보카 지구'라고도 불리는 라보카는 과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표적인 항구였지만 이젠 형형색색의 집들이 있는 관광지로 남아있다. 라보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한 알록달록한 집들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불법이민자의 아지트였다.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민자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리가 있다고 천명했으나 여전히 먹고 사는 건 녹록지 않아서 이들은 부도노동자들로 하루하루 삶을 이어갔다. 이때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확인증으로 받은 딱지 색깔이 매일 매일 달랐다. 이민자들은 자신을

상징하는 그 딱지 색깔을 판자촌 외벽으로 칠하게 됐고 지금은 관광버스가 줄을 잇는 명소가 됐다고 한다. 다양한 색깔의 건물들의 이면에는 서글픈 근대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화가 베니토 킨케라 마르틴이 자신의 고향인 라보카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에 색을 입혔다는 설도 있다. 라보카의 고유하고 독특한 경관은 카미니토 거리에 잘 보존돼 있다. 카미니토의 길이는 약 150m로 원색의 집들, 마르틴이 세운 미술관, 기념품 상점 등이 늘어서 있다. 카미니토는 탱고의 거리이기도 하다. 탱고박물관이 있으며 길거리에서 탱고를 추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도 이 거리에 있다.

◆ 푸에르토 마데로

부유층 거주지로 라플라타강 양안을 사이에 두고 고층 빌딩과 고급호텔이 들어서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평당 1천200만원 정도의 땅값을 자랑한다. 수심이 낮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지역이 신흥도심으로 개발된 건 20여년 정도 됐다. 지금도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 정계계, 연예인, 판검사 등이 거주한다. 그러다 보니 서민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은 하나밖에 없다. 2001년 완공된 푸에르토 마데로의 명물인 '여자의 다리'는 탱고를 출 때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뻗은 여자의 다리를 형상화했다고 한다. 이 다리에서 대통령궁쪽으로 한참을 걸어가면

생태공원이 있다. 여기엔 돼지 어깻살을 구워 만든 버거(본디올라)가 3천원 정도 하는데 줄을 서서 먹어야 될 정도로 인기다. 푸에르토 마데라 고층 아파트에 사는 부자들도 샌들을 신고 와서 사먹고 간다고 한다. 그밖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인증샷 포인트는 아르헨티나 민주화의 심볼인 마요광장, 독립기념일을 따 명명한 7월 9일 거리, 죽음과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모지 레콜레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알려진 엘 아테네오 등이 있다.

◆ 이과수 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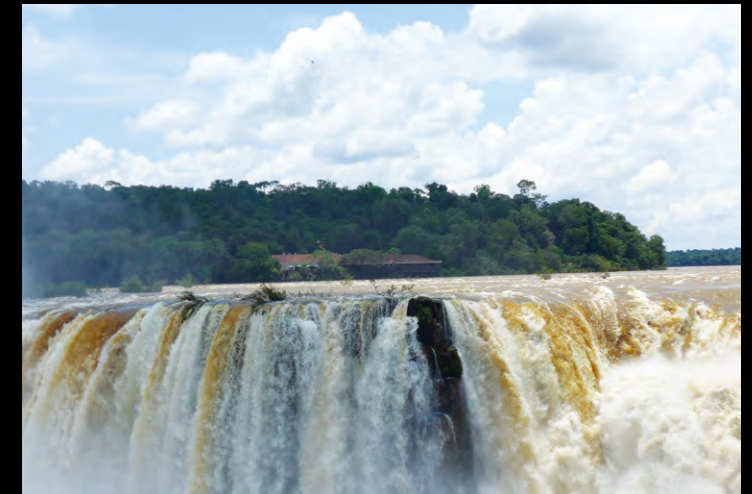
엔리코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배경으로 장엄한 폭포가 인상적이었던 영화 '미션'(1986)의 포스터에 나온 폭포이자 세계 3대 폭포 중 최고로 꼽아도 손색이 없는 곳이 바로 이과수다. 이과수 폭포(Las Cataratas de Iguazu)는 1984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밀림 속에 있는 폭포로 브라질쪽과 합해 약 300 개의 폭포를 아우른다. 길이만 4km에 이른다. 폭포는 대부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선에 걸쳐 있지만 파라과이도 브라질과 함께 폭포발원지로서 이과수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한다. 충분히 일리 있다. 이과수란 과라니어 즉 파라과이 원주민말로 '큰 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화 미션에 나오는 원시부족이 바로 과라니족이며 파라과이의 화폐단위 역시 이걸 본따 과라니로 쓰고 있다.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아르헨티나쪽 이과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다. 가장 큰 폭포인 '악마의 목구멍'이 아르헨티나 이과수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악마의 목구멍'은 끊임없이 떨어져 내리는 그 잿빛 폭포수를 보면 빨려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그 아래 어디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있을 것 같은 곳이다. 환한 대낮에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서 몽환적인 환상에 잠기게 하는 곳. 압도한다는 말 외엔 아무런 표현도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과수 악마의 목구멍이다.

◆ 모레노빙하

하루에 정확히 2m씩 녹아내리고 뒤쪽에서 2m씩 쌓여서 완벽하게 균형을 맞춘다고 알려진 거대한 모레노빙하를 보기 위해선 엘 칼라파테로 가야한다. 인구 2만2천명의 이 작은 유럽풍 도시가 유명한 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만은 아니다. 바로 모레노빙하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란 점에서 그렇다. 끝없이 늘어진 빙하가 일제히 무너져 내리는 장관을 연출하는 곳. 그곳이 바로 모레노빙하다. 빙하가 위치한 곳은 빙하국립공원(로스 글라시아레스 내셔널파크)이다. 2000년대 들어서 5번 있었다는 큰 붕괴 중 2013년이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붕괴다. 큰 붕괴란 TV에서 보듯 빙하가 줄지어 무너져 내리는 걸 의미하는데 실제로 보기가 힘든 게 새벽이나 늦은 밤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겨울인 7월에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운이 좋으면 큰 붕괴는 아니지만 빙하가 줄지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레노빙하는 보통 높이가 40~60m 정도인데 이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서 일으키는 물보라는 뿌리까지 수면 아래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100m가

넘는 파문을 일으킨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빙하기둥 높이가 최소 100m가 넘는다는 것이다. 그런 빙하가 5km 정도 줄지어서 있는 것이 모레노빙하다. 더 놀라운 것은 모레노빙하의 위도가 남위 40도란 점이다. 이는 북위로 따졌을 때 뉴욕, 맨체스터와 같은 선상이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에 빙하는 찾아볼 수 없다. 모레노빙하 투어의 압권은 미니트레킹이다. 빙하 위를 걷는 것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빙하 가장 자리로 걷는다. 한 팀당 20명 미만에 가이드와 고객의 안전을 살피며 길을 터주는 보조가이드 두명이 붙는다. 빙하를 오를 때는 펭귄 걸음처럼 양반 팔자걸음으로 올라야 하고 어깨 넓이만한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쪽 아이젠이 다른 쪽 신발 위를 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려올 때는 중심을 뒤로 하고 카우보이 종잡이처럼 조금씩 발걸음을 떼야 한다. 시키는대로만 하면 미끄러지지 않지만 일반 운동화처럼 걸으면 뒤로 주르륵 미끄러져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두 시간에 이르는 투어의 마지막엔 빙하주 타임이 준비된다. 현장에서 바로 빙하를 깨어서 가이드들이 준비해 온 위스키를 부어서 한잔씩 돌린다. 술을 마시든 못 마시든 모두 한번쯤 시도를 해 본다. 빙하에 위스키를 마시는 경험이 흔하지는 않기에. 그런 다음 엄지를 '척'하고 올리는 건 개인의 몫이다. 

▼ 이과수 폭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악마의 목구멍.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 모레노빙하의 모습. 십리가 넘게 빙하가 펼쳐져 있다.



현대사진예술의 거장을 만나다.

첫 번째 이야기

대구일보 사진부 기자 김진홍



사진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은 위대한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하 HCB)은 1908년 8월 22일 파리 인근에서 5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에 세 번이나 연거푸 낙방한 직후, HCB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예술 쪽 진로를 모색한다. 저명한 미술 교육가인 앙드레 로트에게 2년간 개인지도를 받으며 예술적 재능을 개발한 HCB는 당시 대두하던 초현실주의에 열광하여 앙드레 브르통을 비롯한 그 운동의 핵심 인물들과 교제한다. 1931년에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를 여행하며 이국적인 풍물을 촬영한 것을 계기로 사진과 인연을 맺는다.

1933년에 HCB는 어느 잡지의 요청으로 스페인을 취재함으로써 전업 사진작가의 길에 접어들었고, 미국에서 첫 개인전을 열며 고국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는다. 그러나 HCB는 이 시기에 갑작스레 사진을 그만 두고 영화 쪽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시도한다. 이후 그는 영화감독 장 르누아르 밑에서 조감독으로 제작 실무를 배우는 한편, <게임의 규칙>을 비롯한 몇 편에서는 작은 배역도 맡아 출연한다. 1936년에 HCB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무용수 라트나 모히니와 결혼했고, 스페인 내전 당시에는 영화감독 신분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삶의 승리>를 제작한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징집된 HCB는 중군 사진작가로 활동하다가 1940년 6월 22일에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하이델베르크 인근의 수용소에 수감된다. 1943년 2월 10일 HCB는 세 번의 시도 끝 탈출에 성공, 귀국하여 도피 생활에 들어간다. 1944년에 파리가 해방되자 HCB는

그 환희와 감격의 순간을 생생한 사진으로 남기며 본격적으로 포토저널리즘의 세계에 입문한다.

1947년, 사진작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조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와 HCB 그리고 데이비드 세이무어는 뉴욕 맨해튼에서 매그넘 포토스라는 이름의 사진 전문 에이전시를 창립한다.



1948년 1월 30일, 인도에서 취재 중인 HCB가 간디를 만나고 돌아온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간디 암살 사건이 벌어진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간디의 장례식을 취재한 HCB는 물론이고 그의 사진 저작권을 관리하는 매그넘 포토스의 주가가 꺾중 뛰어오른다. 이후 HCB는 파키스탄과 버마(미얀마)를 거쳐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중국을 취재하고 돌아왔으며, 3년 동안의 아시아 취재는 국제적으로 HCB의 명성을 확립시킨 계기가 된다.



1952년 HCB는 20년 간 찍은 사진 중 126장을 골라 <재빠른 이미지>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며, 여기에 '결정적 순간'이라는 서문을 덧붙였다. 어떤 상황이나 인물의 진수라 할 만한 순간을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서문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진예술론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 책의 미국판은 아예 <결정적 순간>(The Decisive Moment)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면서, '결정적 순간'이란 개념은 HCB와 그의 사진예술관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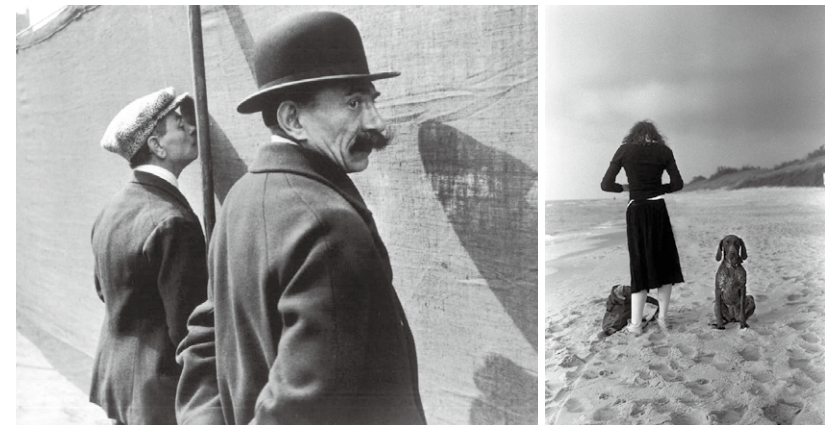
냉전 시대에 HCB는 프랑스 국적자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와 단절된 공산국가를 연이어 방문한다.

1954년에 서방 사진작가로는 최초로 소련을 방문하고, 1958년에는 다시 중국을, 1963년에는 쿠바를 방문했다. 그 와중에 매그넘 포토스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로버트 카파와 데이비드 세이무어가 전장 취재 도중 연이어 사망한다. 유일한 생존 창립 멤버인 HCB는 자연스레 매그넘의 좌장으로 추대된다. 하지만 매그넘 내부에서는 예술성과 상업성의 조화와



공존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1966년에 이르러 HCB는 결국 매그넘을 탈퇴하고 만다. 이 당 시에는 그의 사생 활에 도 큰 변화가 있었다. 30년간 함께 살았던 부인 라트나와 합의 이혼하고, 매그넘 소속의 사진 작가인 마르틴프랭크와 재혼했던 것이다.

1970년에는 사진작가로서의 활동을 중단한다는 폭탄선언을 한다. 물론 그의 주머니에는 항상 라이카가 들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공식적으로 사진 작품을 발표하는 일은 사실상 없었다. 대신 그는 젊은 시절의 관심을 되살려 데생 작업에 전념했고, 비록 사진만큼의 격찬은 받지 못했지만 개인전을 여는 등 나름대로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HCB가 본격적으로 사진작가의 길에 뛰어든 1930년대에만 해도 사진은 아직 완전한 예술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HCB는 만 레이, 앙드레 케르테즈, 외젠 앗제 등의 뒤를 이어 사진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은 주역 가운데 하나로 평가 된다. 미술사가 E. H. 고프리치는 <서양미술사>에 사진 작품으로 로는 유일하게 HCB의 작품 <아킬라 테글리 아브루치>(1952)을 수록하며 “많은 공을 들여서 부지런히 그린 그림에 필적할 만하다”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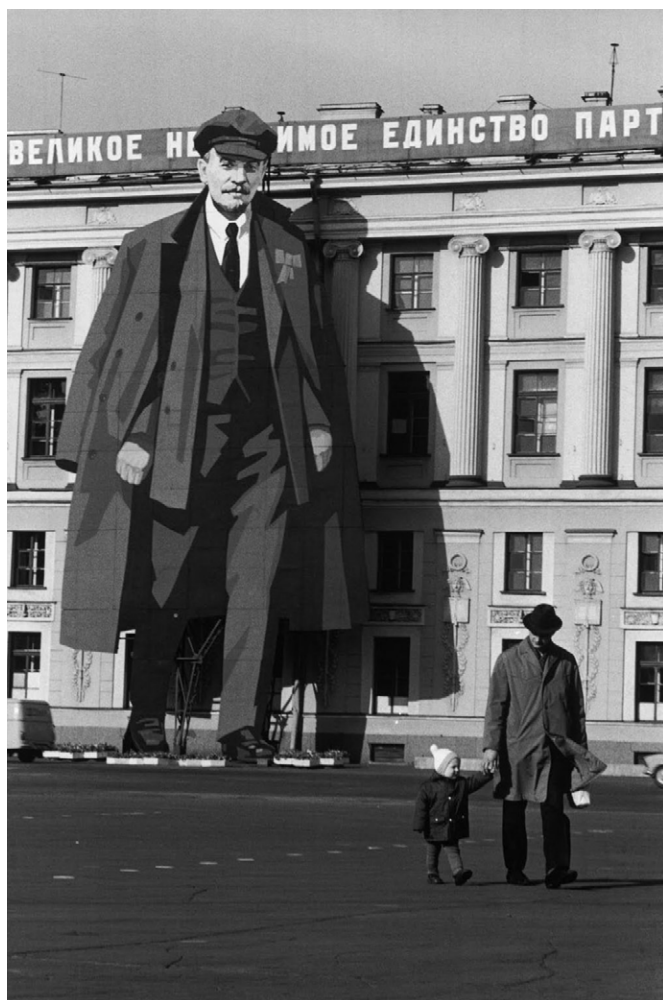
<영혼의 시선>의 서문에서 제라르 마세는 HCB를 가리켜 “자(尺)를 지니지 않은 기하학자임과 동시에 사격의 명수”라고 단언했다. 하나같이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HCB의 능력을 강조한 표현이다.

피에르 아술린은 한술 더 떠서 “사진작가는 소매치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드라마의 현장에 슬그머니 잠입해서 생생한 모습을 포착한 다음, 자기가 영혼을 빼앗을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뒷걸음친다. HCB는 심지어 정물사진을 찍을 때조차 발끝으로 살그머니 접근한다.” 일각에서는 HCB가 포착한 ‘결정적 순간’이 그저 행운의 소산이라고 깎아 내리는 주장도 있었다. 가령 간디가 암살되기 직전에 인도에 있었고, 국민당 정부가 무너지기 직전에 중국에 있었으며, 그 외에 수없이 많은 ‘결정적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리지 않았더라면, 그의 사진이 지금처럼 각광받지는 못했으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술린은 HCB의 ‘행운’보다 ‘노력’에 주목하라고 지적한다. “그가 보이는 집중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그는 재능보다는 노력을 믿으며, 다재다능한 재주꾼을 불신하는 사람이다.” 가령 어느 행인이 빗물로 생겨난 웅덩이를 훌쩍 뛰어넘는 순간을 포착한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HCB는 카메라를 들고 그 근처에서 하루 온종일 잠복했다는 일화가 있다. 물론 그의 독특한 사진에서 ‘행운’의 입김을 완전히 무시할 수야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술린의 말처럼 HCB의 진정한 탁월함은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런 ‘행운’을 움켜쥐기 위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노력’했다는 점이 아니었을까.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HCB의 사진은 이미 세계에 내재한 자연스러운 질서가 우리 눈앞에 드러난다는 점에서 감동을 자아낸다. 아술린에 따르면 HCB는 일반적인 사진보다는 이처럼 우연에서 비롯된 사진을 더욱 좋아했고, 연출된 사진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령 HCB는 미나마타의 참상을 고발한 W. 유진 스미스의 유명한 사진 <목욕하는 우에무라 토모코>조차도 연출된 사진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테크닉보다는 스타일을 중시했으며, 컬러 사진보다는 흑백 사진을 선호했고, 플래시를 “야만적인 행위”라며 지극히 혐오했으며 카메라는 평생 라이카만을 고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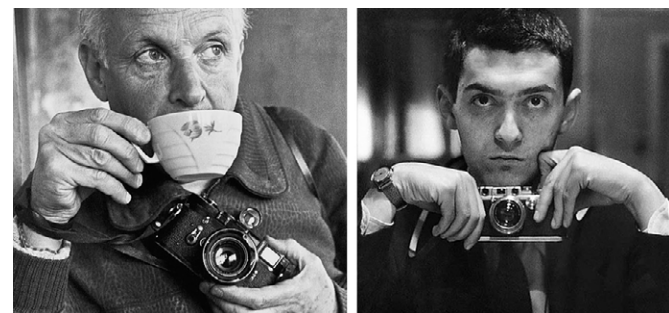


HCB의 명성에는 그의 완벽주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로버트 카파가 목숨 걸고 찍은 사진 대부분이 현상 과정에서의 실수로 망가져서 겨우 11장만이 살아남았다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로서는 사진작가의 실수보다도 현상기술자의 실수 때문에 사진을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HCB는 평생 가까운 친구가 운영하는 전문 현상소에만 필름을 맡겼으며, 나아가 자신의 사진을 일부만 확대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으며, 심지어 일부 사진에서는 내용의 왜곡을 방지하려 자신이 직접 쓴 설명까지도 고스란히 싣도록 요구했다.

HCB는 초상사진 분야에서도 뛰어난 작품을 여럿 남겼지만, 정작 본인은 남의 사진에 찍히는 것을 극구 피했고, 심지어 자화상 사진도 거의 찍지 않았다.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항상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사진작가로서는 이런저런 사진에 등장해서 얼굴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특유의 지론 때문이었다.



2004년 8월 3일, HCB는 수많은 ‘결정적 순간’을 목격했던 그의 눈을 감고 평온히 숨을 거둔다. 96세 생일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서, 오직 우리의 죽음만이 붙잡을 수 있을 따름이다. 사진은 영원을 밝혀준 바로 그 순간을 영원히 포획하는 단두대이다.”



호텔인터불고 대구

“호텔에서 놀자”

지역의 대표 호텔인 호텔인터불고 대구는 요즘 한창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인터불고 대구는 금호강, 고모령, 망우당 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탁월한 접근성으로 도심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그동안 지역 호텔이 비즈니스나 외국인 여행자 수요에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인터불고호텔은 공원과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경관을 활용하여 휴양호텔로 변신하고 있다.

지역민이 기념일 등을 호텔에서 즐길 수 있도록 2017년 초부터 일명 “호텔에서 놀자”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본관 객실 5개층 중 2개층 리뉴얼을 지난해 완성하였고, 현재는 기존 별관 전체를 대대적인 리뉴얼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현재 리뉴얼 중인 별관 객실은 다양한 컨셉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대구시민을 위한 “호텔에서 놀자” 기획상품은 계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호텔에서 놀자” 상품은 완전 새로워진 객실룸과 호텔 2인 석식, 그리고 요즘 뷔페 공간으로 가장 핫한 장소인 더뷔페 옛 인터불고 또는 프리미엄 한식당 심비디움에서 즐길 수 있는 2인 식사와 레포츠타일 이용 그리고 라운지에서 즐기는 시그니처 음료 서비스까지 모든 상품을 패키지로 263,000원에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호텔인터불고 대구는 지난 2016년 147억을 투자해 한식당과 뷔페식당을 새롭게 열고, 차량 600대 주차가 가능한 별관주차장을 신축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본관 1층 연회장을 새롭게 리뉴얼하였고, 새로운 개념의 VIP를 위한 퍼스트라운지를 조성하였다. 2017년 올해에는 전체 176억을 투자해 휘트니스센터 아티스클럽을 실내 리뉴얼을 진행하였고 세계최고의 이태리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 완료하여 현재 최고의 휘트니스 클럽으로 변신시켰다.



10월 완료를 목표로 기존 별관건물의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 중에 있다. 다양한 컨셉으로 재탄생 될 별관 객실은 기존의 호텔객실에서 볼 수 없었던 이야기가 있는 10여종류의 컨셉룸으로 꾸며진다. 또한 기존 넓은 PAR3 공간을 활용하여 호텔 객실과 연계하여 가족, 연인,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글램핑장을 최소 10개동이상 조성 할 계획이다.



기존 별관야외수영장과 비어가든이 있던 자리에는 시원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인공폭포와 연못을 조성하여 물위에 떠 있는 듯한 신개념의 예식장을 신축 예정이며, 호텔정문과 별관 주변부는 조경공사로 경관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리뉴얼을 진행 할 계획에 있다.



호텔인터불고 대구는 2015년 11월 바르미(법인명 즐거운세상)가 인수하여 그 다음해부터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하여 2018년까지 총 500여억을 투자하여 가성비 높은 식문화와 휴식, 즐거움이 있는 호텔로 변화시키고 있다. 



해외여행업계에서 비수기, 성수기는 옛말이 된지 오래다.

휴가가 곧 경쟁력이란 말이 뿌리 내리면서 직장인들도 과거보다는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비용항공사로 불리는 LCC(Low Cost Carrier)항공사들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 역시 LCC항공사들이 앞다퉈 들어옴으로써 올해 7월 현재 총 7개국 13개 노선이 아시아 하늘을 이어주고 있다.

덕분에 개항 이래 처음으로 항공여객 2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대구공항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대구공항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전세기)으로 하늘길이 이어진 해외의 도시들을 살펴본다.

◆ 일 본

- 도쿄(나리타 공항)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일본 지역 전체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가장 많은 약 1천300만 명이 살고 있는 세계 유수의 대도시로 일본의 심장부인 만큼 둘러볼 곳이 많은 곳이다. 일본의 오랜 역사를 담은 근대적 모습과 최신식의 현대적인 모습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도쿄 특별구에는 문화시설이나 관광 명소도 많아 해외 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 각지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올 정도. 도쿄의 행정을 담당하는 도청과 2012년에 복원된 일본 최대의 벽돌건축인 도쿄역, 자립식 전파탑으로는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도쿄 스카이트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도쿄 인근 다마지구의 오키타마라 불리는 서북부는 많은 산과 호수, 계곡으로 이뤄져있어

행락지로 인기가 높아 하이킹이나 캠프, 단풍구경과 중유동굴 견학 등 자연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이 특색이다.

도쿄와 가까운 이즈제도에는 오시마, 도시마, 니지마, 시키네지마, 고즈시마, 미야케지마, 미쿠라지마, 하치조지마, 아오가시마섬 등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어 해상스포츠와 낚시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대구국제 공항에서 떠나자



- 오사카(간사이 공항)



오사카는 일본의 부역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먹거리로 유명한 곳이다. 오사카 동서를 가로 지르는 '도톤보리' 일대에는 수많은 음식점과 술집이 들어서 있고 일년 내내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이다. 높은 빌딩이 많은 우메다 지역에서는 화려한 오사카의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큰 쇼핑센터 거리인 신사이바시, 오사카 성 등이 유명하다. 오사카 근교의 교토도 빠질 수 없는 여행지이다. 청수사, 오노타키펙포, 전통 일본 거리인 기온거리, 금각사, 아라시야마 등 다양한 일본 전통의 진수를 접할 수 있다.

- 후쿠오카



후쿠오카는 일본 서남부의 항구도시이자 현청 소재지로 규슈 지방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다. 일년 내내 온화한 기온으로 여행하기도 좋다. 주요 관광지 모두 한글로 설명이 잘 되어 있고, 호텔이나 상점 등에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이 있어 여행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 후쿠오카 시내에서는 복합 쇼핑몰인 캐널 시티, 텐진 쇼핑거리, 모모치 해변가, 구시다 신사 등이 대표적인 볼거리로 꼽히고 근교에 학문의 신을 모시는 다자이후 텐만구, 료칸과 아기자기한 골목이 유명한 유후인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하카타 라멘, 명란젓, 스시, 후쿠오카 함바그 등이 유명하다. 대구에서 비행시간으로 50분 남짓 도착하는 곳으로 앞으로 더 많은 대구 지역민들이 이용하리라 예상되고, 반대로 대구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 삿포로(신치토세공항)



삿포로는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 도청 중심 소재지로 홋카이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삿포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오오도리 공원은 삿포로 여행의 시작점이자 일년 내내 축제가 열리는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2월 눈축제, 5월 라일락 축제, 8월 맥주축제, 겨울 일루미네이션 축제 등 연중 즐길거리가 다양한 곳이다. 영화 '리브레터' 촬영지이자 만화 '미스터 초밥왕'의 배경이기도 한 근교 오타루도 둘러볼만 하다. 비에이, 후라노 등 인근의 전원도시는 여름에는 라벤더와 각종 꽃으로, 겨울에는 흰 눈으로 뒤덮여 낭만을 선사한다. 또 삿포로만의 먹을거리도 큰 자랑이다. 삿포로 특산물인 털게, 북해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스프카레, 삿포로 미소라멘, 정기스칸 양고기 구이 뿐 아니라 유제품도 유명하다.

- 오키나와



류큐제도 남부에 있는 화산섬으로 이뤄진 오키나와현에서 가장 큰 섬이다. 북부는 산과 밀림이 들어차 있으며 남부는 낮은 구릉지대로 바위가 많다. 주민들은 거의 남부에 살고 있으며 남서부에 현청소재지 나하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 4월 1일 미군이 처음 이 섬에 상륙하여 그해 6월 점령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의 전투가 치열했던 곳으로, 당시 이 지역 건물의 90% 이상이 파괴됐다.

물론 지금은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롭게 태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직도 주둔해 있는 미군부대가 섬 경제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나하시내에 있는 아메리칸 빌리지, 국제거리, 북부 모토부에 있는
츄라우미수족관, 나고 파인애플 파크, 만좌해변, 슈리성 등이 주요
관광지다.

◆ 중 국

-상하이



지난 6월 디즈니랜드가 개장하면서 전세계 관광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떠오른 상하이는 그 이전에도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각종 마천루 건물들로
야경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이다. 우선 상하이를 가면 여행의 꽃이라
불리우는 와이탄 거리를 가봐야한다. 외국 영사관이 많이 모여있으며
넓은 광장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또 상하이의
쇼핑천국인 남경로 역시 놓칠 수 없는 필수 코스로 이곳에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전통가게부터 해외 유명 호텔 등도 모여있다. 상하이박물관과
상하이의 가장 유명한 극장인 상하이대극원을 가보는 것도 좋다.
상하이대극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 만큼 공연을 즐기지 않더라도
한번쯤 둘러볼만한 가치가 있다.

-베이징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세계문화유산 등이 산재한 중국 최대의
관광지라고 할 수 있다. 길이 6천350km 중국 최대의 건축물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만리장성부터 또 다른 세계문화유산인 자금성도
만나볼 수 있다. 자금성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중국의 중심지였으며
궁궐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정식 명칭은 고궁박물관이다. 베이징에서

자금성으로 들어가는 네 개의 관문 중 하나인 천안문 역시 유명하다.
천안문 앞 광장 역시 세계 최대의 면적을 자랑하면서 중국의 스케일을
느껴볼 수 있다. 베이징 하이톈구의 황실정원인 이화원 역시 놓칠 수
없는 관광지다. 여름엔 곤명호에서 보트를 타고 유람을 즐길 수도 있다.

-홍콩



홍콩은 우리나라에 쇼핑의 천국으로 불리우는 도시다. 별칭답게 세계
유수의 브랜드, 명품매장 등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쇼핑만으론 홍콩을 다녀왔다고 할 수 없다. 홍콩에 왔다면 꼭
둘러봐야할 5곳이 있다. 먼저 침사추이 해변 산책로에 위치한 홍콩
스타의 거리. 이곳에는 장백지, 양조위, 성룡 등 홍콩 스타들의 발자취와
홍콩의 오랜 영화사를 살펴볼 수 있다. 홍콩에도 야시장이 형성돼 있다.
홍콩 2대 야시장 중 한 곳인 레이디스 마켓에는 다양한 상품을 값싼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홍콩의 진정한 야경을 즐기고 싶다면 빅토리아
피크를 가봐야한다. 이곳에는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피크트램(
산악열차)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홍콩 최대규모의 테마파크인
오션파크에서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홍콩의 밤을 즐기고
싶다면 란콰이퐁을 추천한다. 재즈바, 클럽, 와인바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홍콩 내에서도 또다른 이국적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하이난



싼야는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는 중국 최남단 섬 하이난에 위치한
대표적 휴양지로 워터파크, 골프장 등 다양한 휴양 시설을 갖춘
리조트와 빌라가 즐비하며, 해양 스포츠, 다채로운 호화 쇼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모두 모인 곳이다. 싼야는 다낭, 괌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힐링 포인트로 각광받고 있다. 즉 휴양과 레저, 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휴양지의 '완성판'격이라고 할 수 있다.

◆ 기타 비정기 국제선

-필리핀 세부



아름다운 해변과 따뜻한 날씨로 세계 최대 휴양도시로 이름이 높은
필리핀 세부. 휴양 외에도 둘러보면 좋을 여러 관광지들이 있어 여행을
한층 즐겁게 해주는 도시다. 이곳에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관광지들이
있다. 마젤란십자가 성어거스틴 산토리뇨교회에서는 소원을 이뤄주는
초를 켜둘수도 있다. 세부의 가장 큰 쇼핑몰인 아얌라몰에서는
필리핀의 맛집부터 오락시설, 운이 좋다면 중앙 잔디광장의 무대에서
열리는 음악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택시 관광을 즐기는 것도 괜찮다. 일정 금액을 내면 택시를 하루동안
빌려 유명 관광지를 손쉽게 돌아볼 수도 있다.

-베트남 다낭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떠오르고 있는 유명 관광지로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수 있어 특히 인기가 높다. 다낭에는 세계 6대 해변 중 한
곳이 있으며 산위에 디즈니랜드처럼 만들어 둔 바나힐 국립공원,
등불의 도시인 호이안, 역사적 유물이 남겨져 있는 후에 등 다양한
관광지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프랑스 식민시절인 1923년 세워진
다낭대성당의 분홍빛 건물을 살펴볼 수 있으며 다낭의 마블마운틴과
65m의 베트남 최대의 불상이 세워져 있는 손짜까지 종교적 역사를

탐방해볼 수도 있다. 베트남 다낭의 속살을 살펴보려면 호이안
구·신시가지를 둘러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만 타이베이



얼핏 중국의 느낌이 강하지만 독자적인 매력이 가득한 곳이 바로
대만의 타이베이다. 대만은 중국과 일본의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작가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된 곳도 있으며
세계 최대 야시장인 쓰린 야시장까지 곳곳에 둘러봐야할 곳이 넘치는
곳이다. 우선 철도마을인 스펜과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인 101
타워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한달을 둘러봐도 다 둘러볼 수
없을만큼 많은 문화재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대만의 정신인 초대총통
장제스를 기념하기위한 중정기념당은 꼭 둘러봐야할 필수 코스다.

-괌



에메랄드 빛의 해변과 파사로운 햇살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괌. 흔히
괌은 단순히 휴식을 즐기 위한 장소로만 생각하지만 괌에도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관광지들이 많다. 우선 괌의 가장 대표적인
해변인 투몬비치에서는 이국적인 해변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과거 괌이 스페인식민지 시절 스페인 장교와 강제적인 결혼을 피해
도망친 두 연인이 머리를 묶고 뛰어내렸다는 설이 있는 사랑의 절벽,
괌의 대표적 성당인 아가나 성당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아가나 성당
앞에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만큼 당시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스페인광장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라테스톤 공원 등 괌의 자연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집은 무엇이 될것인가?

우리사회에서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집은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 된다.

단칸방에 살던 사람은 전셋집으로 옮겨 가기를 원하고,

전셋집에 살던 사람은 작은 내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기를 원한다.

내 집을 이룬 사람은 점점 넓은 새아파트의 이주를 희망한다.

지난 20~30년 아파트는 재테크로 인식되면서 우리 생활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아파트 문화에 길들여져 왔다. 주변에 간간히 도외지로 나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별스럽다거나 웅기가 대단하다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 하며, 아파트 생활에 길들여지고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어느새 이웃과는 소통없이 단절을 해오며 도시에서 섬처럼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대영레테코(주) 대표

송원희



중년의 나이, 우리에게 집은 무엇인가

과거 우리가 살았던 한옥, 여름 한철 소나기라도 퍼붓고 지날때에는 뒷마루에 턱을 고이고 누워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 자연이 만들어낸 음율을 듣게 되고, 방울방울 거품을 만들고 마당을 휘감고 나가는 누런 황토물은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먼 바다로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절로하게 된다.

방과 방사이에는 마루가 있어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즐기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여름철 마루 뒷문을 열면 뒷대안의 서늘한 바람이 불고, 무엇이 올려 지느냐에 따라 밥상이 책상이 되기도 하며 팔랑팔랑 거리는 책들을 붙잡고 행간을 밑줄 치며 넘기는 다음 페이지는 어느덧 중년이 되었다.

집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획일적으로 찍어낸 아파트가 투자수단이 되면서 별고민 없이 지내왔지만,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의 개성적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겠다는 중년에게 집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치로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집은 즐길수 있는 공간, 내 삶의 행복을 그려 넣을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적 의미를 담는다.

집은 연령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30대 어린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유치원이나 학교가 가깝고,

역세권이나, 편의시설이 좋은곳을 최우선으로 꼽을 것이다.

40대에는 경제적인 여력만 허락한다면 랜드마크인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명성과 부를 과시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돈 되는 아파트에 살고 싶을 것이다.

50대는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되는 시기이다. 예전에 꿈꾸어왔던 어린 시절의 마루가 있고 넓은 마당이 있는, 한 칸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생각의 기억을 다시 꺼내어 본다.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내려간다는 사람

도심 근교의 전원주택 부지를 확보한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마을을 이루고 살려는 타운하우스

생각의 꿈을 키우는 마루가 있는 사색의 테라스 하우스

숲, 강, 바다 모두 끼고 살수는 없지만, 다채로운 공간에서 자기만의 행복을 그려낼수 있는 멋진 집을 계획하고 준비하려 한다.

떠나 보내고, 버릴 수 있는 중년은 이제 시작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파트라는 주거문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지만, 지금도 꿈을 찾는 그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제시할 것이 명백해보인다.



“커져가는 PR의 중요성, 효과적인 PR방법”



21세기는 PR의 시대다.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로워지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당연시 되면서 마케팅 환경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커뮤니케이션은 더 이상 단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 그리고 기업과 공중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커뮤니케이션, 즉 PR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고, 그에 따라 PR은 하나의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PR은 관계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광고나 홍보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PR은 퍼블릭 릴레이션스(Public Relations)의 약자로, 기업, 개인 등의 마케팅 주체가 공중과의 호의적인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그렇다면 PR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커뮤니케이션 대상인 공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PR은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뿐 만 아니라 잠재적 고객을 포함한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목표 공중의 특성, 관심사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둘째,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기업이 가진 수많은 메시지 중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관심사이면서 그들과의 호의적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될 메시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상황에 따른 적절한 매체 활용능력이 요구된다. 매체는 공중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구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나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여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이 같은 일들을 기업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내기에는 PR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로 인해 전문성을 가진 PR전문대행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서울 지역에는 PR전문대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전문 대행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기업체 및 각종 단체들의 고민거리인 대언론 PR업무를 해결해 주기 위해 PR전문홍보대행사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난 해 대구지역에서 설립된 『PR네트웍스(대표 구건우)』다.

대구의 광고대행사인 (주)솔트커뮤니케이션즈와 서울의 PR 전문대행사인 (주)터PR의 합자회사인 『PR네트웍스』는 언론홍보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언론 홍보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이 업체는 대구/경북지역 뿐 만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인 PR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언론 관계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는 언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앞서 언론기피 현상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대언론 전담 조직이 있는



회사보다는 업체대표가 직접 또는 총무부서에서 언론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업체가 많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의 말대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처럼 중소기업이 많은 기업체 현황을 놓고 보면, 이번 PR 전문 업체의 등장은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다양한 단체와 사단법인 및 기관단체에서도 PR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대표는 “최근 글로벌 경기하락 가운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각 업체마다 고정비 절감 차원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진행 되고 있어 PR전담 직원을 고용할 상황이 되지는 못한다”며 “PR전문대행사가 업무를 대행할 경우, 업체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PR 전문 직원이 한명 생기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PR업무가 가능하다”며 웃으며 얘기했다.



이미지 메이킹



현 시대의 이미지 메이킹이란 개인 브랜드 창출이다.

보통 일반인들에게 브랜드 창출이란 거창해 보이거나 혹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 메시지란 바로 이미지를 말한다.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거나 누군가에게 노출되는 곳에서 나만의 첫인상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나의 외모...나의 표정...나의 자세...나의 말...나의 행동...등..

이 모든 것은 첫인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 첫인상이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가 본인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나만의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첫 번째, 내적이미지 시스템을 만들어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첫인상에 끌렸는데 별로인 사람이 있는가하면 첫인상은 별로였으나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적이미지란 심성, 습관, 욕구, 감정, 생각 등으로 나뉜다. 이를 포함하고 내적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빛과 자신감이다.

눈빛과 자신감은 본인의 지적이미지(아이디어, 사고력, 추진력, 전문지식 등)와 감정적이미지(성격, 성향, 자기에 등), 사회적이미지(대인관계, 리더십, 긍정적시각 등)에 따라 내가 아닌 상대가 평가하고 판단한다.

정답보다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자만이 아닌 자신감으로 아이컨택을 하고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찾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스타일리스트 **주아훈**

두 번째,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라.

이미지 메이킹은 내적이미지와 외적이미지로 구분된다. 외적이미지란 이름, 직업, 옷차림, 소유물 등으로 이루어진다. 외적이미지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편견과 선입견이다.



이미지 메이킹

예를 들어 핑크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의 얼굴색과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핑크색을 선호한다면 잘못된 방법이다. 나의 외형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색과 디자인을 선택해야 한다.

처음엔 나 또한 일반사람들은 '패션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이미지메이킹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라고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다.

그러나 수년째 특강을 해 오면서 전문직 종사자든 기업체 CEO든 공인이든 본인의 변화된 모습을 궁금해 하고 기존의 모습을 더욱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는 모습을 보고 느낀 것은 계기가 없었을 뿐 누구나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에 중요성을 느끼고 자신만의 메시지를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나의 내적 마인드와 외적 마인드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 균형을 적절히 이루고 있을 때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생각만이 아닌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미지는 형성되고 나만의 메시지가 만들어 질 것이다.



영자, 순자, 말자라는 이름은 대개 세련되거나 도시적인 이미지 보다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준다.

또한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닌 직업에 관해서도 이미지를 형상화 한다. 보통 전문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깔끔하고 세련되고 적극적일 것이다...아니면 공인들은 단정하고 신뢰감이 있을 것이다... 패션인들은 화려하고 독특하며 항상 에 앞설 것이다... 라는 직업군의 이미지도 존재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과 선입견으로 상대를 본인들의 잣대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 변화하라.

본인의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 방법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나의 내적, 외적 장점과 단점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하고 싶은 것 보다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은 있다. 배우 장동건과 유해진의 매력이 다르듯이 사람마다의 매력과 장점은 한가지씩은 존재한다. 그 장점을 찾았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싶은 것 보다 해야 하는 것을 변화시키면 된다.

1. 보험에 대한 접근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보험.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보험을 접하지만 정작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꼼꼼하게 실속을 따지는 것보다는 보험 관련 일을 하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의 중도 해지율이 높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보험 유지율을 보면 실손 의료비 보험 5년 ▶ 48% 10년 ▶ 14.7% 의 유지율을 보인다.

생명보험의 종신 보험 10년 유지율은 50%를 넘지 못하며, 노후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은 20% 대의 유지율에 머무른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원인은

1.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기 보다는 인맥 위주의 영업환경

2. 설계사들의 세일즈에만 치우친 마인드

3. 소비자들의 의식 부족

이렇게 유지율이 떨어질수록 이득을 보는 건 보험사들일 것이다. 그럼 보험을 설계 혹은 가입전에 보험에 대해 어떤 부분들을 체크 해야할까?

1. 가족의 리스크를 측정하라.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입의 필요성을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는 사람들을 본적이 없다.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혹은 다들 가입 해놓았으니까 라는 대답을 많이 한다. 왜 가입하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 제시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꿈꾸는 기대치, 환경, 가족력 등을 생각하고, 어떤 범위의 상품을 선택하고 싶은지 설계사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험료의 범위와 담보의 범위를 체크해라.

아무리 좋은 상품 일지라도, 유지를 할 수 없는 조건 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납부 할수있는 보험료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담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통합보험으로 하나의 상품을 적절한 담보들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보조 개념의 보험상품으로, 부족한 담보의 구성을 강화 시키는게 상당히 유리하다. 물론, 위 전제조건은 변화되는 환경에서도 유지 가능한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컨설팅을 받아 보고 질문을 많이 해라.

일반인들은 수많은 보험 상품과 회사..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보험 구조를 이해 하는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잘 아는 지인이라고 그 사람의 컨설팅이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게 아니다. 직책, 근무 년수, 지인과의 친밀도, 이런 이유가 보험 설계를 평가할 기준점이 될 수는 없다. 보험의 상품 구조와 종류는 엄청나게 넓다. 설계사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질문을 많이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질문에 정확히 응대하는 설계사라면 당신에게 더 다양한 제안을 해줄 수 있다. 반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설계사는 무조건 피해라.



AIG Advisor
대구지역단 영업팀장
이정환

보험상식



4. 보상에 대해 지식을 가진 설계사를 만나라.

보험은 가입설계도 중요하지만, 보상이 보험의 꽃이라고 말하고 싶다. 보상을 잘 한다는 것은 상품 구조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담보와 변화되는 약관, 사례들 속에서 100% 확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른 문서화 된 팩트를 가지고 조언을 하는 설계사가 필요하다.

한 예시로 필드에서 자주 마주치는 모습들이 월10만원 상품을 가입하는데, 상품설명을 듣고만 있거나, 궁금증이 없는 고객들을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이 계약은 10만원 보험계약이 아니고, 20년납을 기준으로 한다면 2,400만원 계약을 20년 할부로 진행하는 것이다.

길어야 10년! 소모품인 자동차 구입 에서는 3년 할부를 진행 하면서, 0.1~2%금리, 옵션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쉽게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본인 재산과 신체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는 왜 그리 무심한지 모르겠다.

이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라는 단어,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있는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선택에서 대개의 사람들은 각자만의 생각 안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은 돌이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질병과 사고의 위험이라는 이벤트가 다가오고 난 뒤에는 선택과 생각할 시간이 주어 지지 않기 때문이다.



2. 보험 분류

■ 생명보험

사람의 사망과 신체를 담보로 하는 상품 위주
사망보장의 범위가 넓고, 투자 상품위주의 저축상품이 다양하다.
생존보장의 범위가 손해보험사와 대비 좁은 편이다. 의무보험과 재물보험을 취급하지 않는다.

■ 손해보험

사람의 사망과 신체를 담보로 하는 상품 위주
자동차 보험 - 화재보험 - 재산종합보험 - 배상책임 - 재물을 담보로 하는 보험 - 의무 보험
생존보장의 담보와 범위가 넓으며, 올 리스크 재물보험을 취급한다.
사망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사 대비 좁은 편이다. 투자 성격의 저축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간략한 예를 들자면 2017년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존보장	뇌졸중	뇌출혈만 보장 뇌경색(63)까지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질병코드 160~63,65,66 모두보장
사망보장	사 망	100억 가능	보험사마다 평균 2억

3. 보험 약관의 이해

■ 보험을 계약하게 되면 두꺼운 약관 책을 받아보게 된다.

보험계약 시 서면화된 약관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차근차근히 하나의 담보를 가지고 보게 된다면 의외로 이해도가 올라간다.

하나의 예로 우리가 흔히 아는 실손의료비에서 치과는 안된다고 알고들 있다. 하지만 약관을 들여다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면책이라고 기재 되어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과연 보상이 되지 않을까?

종합병원의 “치과”에서는 급여 부분은 보상이 가능하다.(2009년 8월 이후 가입) 또한, 2009년 7월 이전 가입시기에 따라,급여+비급여 모두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플란트, 틀니, 크라운 등 비급여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은 면책이다.

위 예시처럼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를 우리는 모두 치과로 알고 있지만, 보험의 약관은 정식 명칭에 의거하여 보상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다. 열거방식과 포괄방식을 같이 추구하고 있다.

■ 약관만 본다고 내가 계약한 상품의 범위를 다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분기별로 변화하는 보험상품의 담보들과, 분쟁으로 인한 개정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조정사례/법원 판례를 조합해야 한다. 사고는 상황이 다양하고,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 이기에, 보험사와 고객간의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약관의 기본적인 사항만 이해한다면, 거대 보험사로부터 나의 권리를 방어할수 있다.

정리하며, 계약 체결 후 혹은 사고 발생 후 의문점이나 계약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계약 전에 사항들을 상세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보험은 내 재산과 신체를 담보로 하는 계약이다.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듯, 계약 조건도 다 달라야 할 것이다.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계약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질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Daegu FC Match

- ▶ K리그 클래식
- ▶ 대구FC vs 포항스틸러스
- ▶ 일시 : 2017년 9월 10일(일) 오후 7시
- ▶ 장소 : 대구스타디움



- ▶ K리그 클래식
- ▶ 대구FC vs 수원삼성블루윙즈
- ▶ 일시 : 2017년 9월 16일(토) 오후 7시
- ▶ 장소 : 대구스타디움

- ▶ K리그 클래식
- ▶ 대구FC vs 울산현대축구단
- ▶ 일정 :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 ▶ 장소 : 울산문수구장



- ▶ K리그 클래식
- ▶ 대구FC vs 전북현대모터스
- ▶ 일시 : 2017년 9월 24일(일) 오후 6시
- ▶ 장소 : 전주월드컵경기장

- ▶ K리그 클래식
- ▶ 대구FC vs 인천유나이티드FC
- ▶ 일시 : 2017년 9월 30일(토) 오후 3시
- ▶ 장소 : 대구스타디움



※대구FC 경기일정은 국가대표 경기 일정 및 연맹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gel Club〉은

한국 정기간행물 윤리위원회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gel Club〉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gel Club〉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Angel Club〉은 대구FC의 후원단체인 엔젤클럽을 중심으로 대구시민들에게 대구FC 및 엔젤클럽 관련 소식을 전하고 교양을 전달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매거진입니다.

〈Angel Club〉을 만드는 사람들

- ▶ 발행기관 : 대구FC 엔젤클럽(회장 이호경)
- ▶ 발행 · 편집인 : 최종태
- ▶ 편집장 : 김승근
- ▶ 엔젤클럽 사무국 : 사무총장 김종두, 정연주
- ▶ 포토그래퍼 : 김진홍
- ▶ 편집기자 : 정연주, 신성영, 정동영, 최지수
- ▶ 편집디자인 : 김기대, 김정주
- ▶ 인쇄 : (주)케이프린텍(대표 한금재)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Angel Club〉은 독자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ngel Club〉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엽서를 통해 의견을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엽서를 보내주신 분 중 퀴즈 정답자 5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42064)
전화 : 053.256.2003 팩스 : 053.746.9199
메일 : daegu.fc2002@naver.com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

받는 사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 담당자
TEL 053.602.7307 FAX 053.602.7306

4 2 0 6 4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신청서 Angel Club

*가입 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자 정보		가입번호	
성명 (회사명)	생년 월일	연락처	상의 사이즈
주소	E-mail		
추천인	결혼기념일		

후원 금액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에 표시해주세요)
	□ 100만원 이상 - ()원

결제 방법
□ 계좌 이체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카드 결제

엔젤클럽 추천 약정	
본인은 엔젤클럽 가입과 함께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람을 엔젤클럽 회원으로 추천하는 “후원 릴레이”를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추천시기	□ 바로 추천(아래의 추천 대상자 인적사항을 바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1주일 내 추천(추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상자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해주신 정보는 대구FC 엔젤클럽 가입 및 혜택 제공 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을 위해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 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안내 사항
우편 발송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42064) 팩스 송부 : 053)602-7306 ※문의 사항은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 ☎ 053)602-73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구FC 엔젤클럽에 가입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FC와 함께 만드는 멤버십 매거진 <Angel Club>은
대구FC를 응원하는 엔젤클럽의 후원지입니다. 독자님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내용과 다음 호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내용을 적어주십시오.

2. <Angel Club>을 읽고 편집부에 전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3. <Angel Club> 독자 퀴즈
7월 23일 강원 원정 경기에 출장함으로써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의 금자탑을 달성한 선수는 누구입니까?

답 :

연락처 :

※엽서를 보내주신 분 중 퀴즈 정답자 5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안내

■ 가입방법

- ▶ 가입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가입신청서 엔젤클럽 사무국 보관
- ▶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으로 문의
 - Tel : (053) 602-7307
 - Fax : (053) 602-7306
 - Phone : 010-3861-4505 (대구FC 엔젤클럽 사무총장 : 김중두)

■ 후원금액

- ▶ 100만 원 이상 희망하시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 후원금 처리방법
 - 후원금은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지급되고 실제로 입장권이 지급되므로 사업장의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 ※ 참고 : 대구FC가 시민의 힘으로 창단한 시민구단으로, 주식회사 이다보니 상법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 결제방법

- ▶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카드 결제 시 엔젤클럽 사무실 또는 홈경기 시 엔젤상견례장소)
- ▶ 계좌번호: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가입 혜택 안내

- ▶ 기념품 : 엔젤클럽 자켓, 머플러, 사인볼(1회)
- ▶ 엔젤회원 확인 및 홈경기 관람 ID 카드 지급

대구시민프로축구단

2017 Vol.1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기재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대구FC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gel Club>은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기고나 사업제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처 /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42064)

전화 : 053,256,2003 팩스 : 053,746,9199

메일 : daegufc2002@naver.com



대구 FC 엔젤클럽 매거진 「엔젤클럽」 창간을 축하합니다

5분 시지생활권 지하철 2호선 정פע역과 달구벌대로 계속교통권

남천 강변라이프 수변공원을 가깝게 누리는 힐링라이프

명품 브랜드아파트 최고 브랜드 e편한세상의 브랜드 프리미엄

e편한세상

경산 정평이 아껴둔 자리! 모두가 꿈꾸고 기다렸던 브랜드!
기다림보다 더 큰 감동을 품은 특별한 세상이 열립니다

당신을 위한 더 특별한 세상 - e편한세상 경산 정평

총 899세대(예정) 74㎡ | 84㎡ · 문의전화 053)345-6789

(주) 다운 BnA

Football & Culture Calender

09 2017

10 2017

▶ **K리그 클래식** : 2013년 새로 명명된 대한민국 프로축구 1부 리그.
하위의 2부 리그로 K리그 챌린지가 있다.

▶ R 리 그: K리그의 2군 리그.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대구FC 경기일정은 국가대표 경기 일정 및 연맹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일정은 주최측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람회



- ▶ 2017 대구과학축전 (Daegu Science Festival)
- ▶ 일정 : 2017년 9월 29일(토) ~ 2017년 9월 30일(일)
- ▶ 장소 : 대구 엑스코
- ▶ 문의 : 053)601-5211/5397

과학책 전시관, 미래첨단기술 체험존, 유관기관체험존, 가족과학교실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창의적 인재로 육성한다. 동시에 지역의 과학관련 기관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과학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과학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 참여형 과학 박람회.

- ▶ 2017 대한민국 LED산업전
- ▶ 일정 : 2017년 9월 14일(목) ~ 2017년 9월 16일(토)
- ▶ 장소 : 대구 엑스코
- ▶ 문의 : 053)601-5098

국내 유일의 B2B, B2C를 모두 갖춘 양방향 비즈니스 전시회, 다양한 세미나로 실질적 참가효과를 얻을 수 있는 B2B전시, 인테리어조명 특별관 등 일반인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B2C전시, 그 외에도 스마트 가로등거리 등 볼거리가 가득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특성화 되어있다.



- ▶ 대구 홈테이블데코페어
- ▶ 일정 : 2017년 10월 19일(목) ~ 2017년 10월 22일(일)
- ▶ 장소 : 대구 엑스코
- ▶ 문의 : 02)555-7153

홈·테이블데코페어는 인테리어 트렌드와 감각적인 리빙 브랜드를 한 곳에서 소개하는 프리미엄 홈스타일링 전시회다. 2016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제주 4개의 도시에서 총 20만 명의 관람객들이 홈·테이블데코페어를 방문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홈·테이블데코페어는 삶의 공간에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연

- ▶ [2017 Theatre 이문세] 콘서트
- ▶ 일정 : 2017년 9월 8일(금) 오후 8시 / 2017년 9월 9일(토) 오후 6시
- ▶ 장소 :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 ▶ 문의 : 1566-9621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만드는 가수 이문세가 9월, 대구 경산을 찾는다.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 다채로운 춤과 영상, 관객들의 미소가 한데 모여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에 남게 될 2017년 가을, 가장 특별한 하루, [2017 Theatre 이문세] 역시 최선을 다해 만드는 최고의 공연이 될 것이다.



- ▶ 2017 터보 첫 극장판 콘서트 <아는형들>
- ▶ 일정 : 2017년 9월 10일(일) 오후 6시
- ▶ 장소 : 경북대학교 대강당
- ▶ 문의 : 1688-6675

익리 익리하게 돌아온 세 남자 터보. 지난 해 성공적인 대형 공연에 이어 올해는 첫 극장판 콘서트로 관객 밀착형 공연을 선보인다. 본능적 때창과 때춤을 유발하는 취향저격 음악축제, 놀 줄 아는 동네형들과 신나는 한판! You Only Live Once, YOLO 올로와!

- ▶ 제36회 대구음악제
- ▶ 일정 : 2017년 9월 12일(화) ~ 2017년 9월 15일(금)
- ▶ 장소 : 대구콘서트하우스
- ▶ 문의 : 053)656-7733

일찍이 많은 음악인들을 배출한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와 지역 음악인들의 음악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펼쳐는 성대한 음악축제인 '대구음악제'. 이제 '대구음악제'는 순수음악을 통한 기초예술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구시민과 함께 멜로디가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를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공연, 전시 일정은 주최측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구 FC 엔젤클럽 매거진 「엔젤클럽」 공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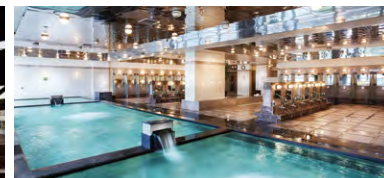
아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가 비즈니스 문화를 새롭게 탄생시키다!!

아티스(Artis)클럽은 품격 높은 사교의 장으로 비즈니스, 건강, 휴식, 힐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입니다.

내몸을 예술로 FITNESS CLUB ARTIS 클럽문의 : 053) 793-9999



▲ 이탈리아의 테크노짐 최상위 아티스라인 구축



▲ 사우나



▲ 실내수영장



▲ 실내골프 연습장

이제 호텔리어에서 놀자!

PREMIUM PACKAGE

- 월~금요일 뷔페, 토~일요일 심비디움 바닷가재 석식제공
- 퍼스트 라운지 시그니처 음료 제공
- 패키지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 / 별 / 우 / 대 / 가 (2인기준)
₩263,000 PACKAGE
패키지 상품은 당일 취소는 불가합니다.

디럭스 더블룸 or 디럭스 트윈룸 + 석식2인(더뷔페 or 심비디움)
+ 퍼스트 라운지 시그니처 음료 2잔 + 사우나2인 + 호텔조식(2인)

객실예약문의 (053)602-7171~3



Hotel Inter-Burgo DAEGU

대구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300번지) <http://www.hotel-interburgo-daegu.com>



DAEGU FC
DAEGU FOOTBALL CLUB

MF. 8 김선민

K LEAGUE

100

GAMES



DAEGU FC
DAEGU FOOTBALL CLUB